

## Ⅱ. 고구려의 변천

1. 체제정비
2. 영토확장
3. 5~6세기의 대외관계
4. 후기의 정세변동

## II. 고구려의 변천

### 1. 체제 정비

#### 1) 체제 정비의 배경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유역의 정치세력들이 연맹체를 결성함으로써 성립되었다. 고구려 초기에는 자체 운동성을 가진 정치집단이 다수 존재했으나 桂婁部 왕실이 확립되면서 이 다수의 정치세력들은 那部로 편제되었다. 각 나부 내부의 정치는 諸加들이 나부의 長으로서 중앙과는 별도로 자체의 관인을 두고 반자치적으로 운영하였다. 제가들은 나부를 자신의 세력기반으로 하여 중앙정치에 참여하였다. 즉 제가회의에 참여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협의·결정한 후 집행케 함으로써 국왕보다 하위지만 그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왕은 그 자신 가장 유력한 나부인 개루부의 장으로서 다른 나부 안의 일에 대해서는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다만 諸加를 통해 간접적, 집단적으로 나부민을 통치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왕의 官人과 각 나부 제가들의 관인은 서열이 달랐다. 그리고 제가는 자신이 스스로 설치한 관인들의 명단을 국왕에게 보고해야 했다. 왕족과 다른 귀족들은 존재 자체에서 차이가 났고 왕의 우위는 확정된 상태였다.

따라서 국내외문제에 대한 통치는 왕의 주도 아래 대표적 귀족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였다. 이와 같은 고구려 전기의 정치운영체제를 나부통치체제라 한다.<sup>1)</sup> 이 나부통치체제는 大武神王대에 기초가 놓였고 태조왕대에

---

1) 盧泰敦, <三國時代의 ‘部’에 관한 研究>(《韓國史論》2, 서울大 國史學科, 1975).  
 余昊奎, <高句麗 初期 那部統治體制的 成立과 運營>(《韓國史論》27, 1992).  
 林起煥, <高句麗 集權體制 成立過程의 研究>(慶熙大 博士學位論文, 1995).  
 金賢淑, <高句麗 前期 那部統治體制的 運營과 變化>(《歷史教育論集》20, 慶北

완성되었다.<sup>2)</sup> 나부체제의 성립 후 고구려족은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급속하게 팽창시켜 나갔다.

그런데 3세기말이 되면 나부가 자체 운동성을 상실하고 소멸되었다. 나부의 해체는 몇 가지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먼저 빈번하게 치루어진 정복전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복전쟁은 고구려의 생존권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였다. 중국 군현세력과의 투쟁과정에서 성립된 고구려는 분열책을 써서 군현지배를 지속하려고 하는 중국측에 대항하여 정치적 통합을 이루고 국가를 발전시켜야 했다. 그리고 취약한 생산기반을 보충하기 위하여 경제적 기반이 될 지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 때문에 나부체제가 완성된 이후 고구려는 대중국 투쟁과 대외정복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대외전쟁에는 국왕측 군사와 제가들의 병력이 함께 동원되었다. 이 때 軍의 최고지휘자로서 전쟁을 수행하고 전리품을 분배함으로써 국왕의 정치적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고 부도 축적되었다. 반면 제가들은 독자적으로 병력을 거느리고 출정하지만 군통수권자인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참전자들의 희생이 당연히 있었을 것인데, 이 경우 가장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왕에 비하여, 제가들은 병력 손실로 인하여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제가들 스스로 戰士로서 참전했으므로 자신이 희생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전쟁이 빈번하게 발발할수록 왕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제가들의 세력기반은 점차 축소되었다. 그리고 전쟁과정에서 전사나 보급 담당자로 참여한 那部民이 희생되거나, 포로나 유이민 등이 나부로 편입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5나부의 배타성과 공동체적 유대가 점차 약화되었고 나부의 독자적인 자체 운동성이 줄어들어 분해되기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농업생산력의 증대로 인한 읍락민의 계층분화를 나부분열의 요인으로 들 수 있다. 3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철기의 대량 생산으로 철제농기구가 보편적으로 보급될 수 있었다. 발견된 숫자가 극히 적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기에 만들어진 대형 철제보습이 集安지역에서 출토되므로 이 때 가축의 힘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게

大, 1995).

2) 金賢淑, 〈高句麗의 解氏王과 高氏王〉(《大丘史學》 47, 1994), 26~27쪽.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철제 농기구의 보급으로 농업생산력이 증대되고 토지의 가치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토지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토지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토지를 상실한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sup>3)</sup> 그 결과 읍락민들도 호민층과 자영농민, 소작민, 용작인 등으로 분화되었다. 계층분화가 심화되면서 각 읍락에 남아 있던 공동체적 유제는 점차 소멸되었다. 이에 따라 나부의 기존 지배자들의 통치권도 정상적으로 읍락에 미칠 수 없었고, 나부의 자체 운영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나부에 대한 소속의식과 운명공동체의식도 희박해졌고 나부별 독자적 운영을 뒷받침해주던 경제적 관계도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나부 해체요인으로는 국왕층의 의도적인 나부분열 노력을 들 수 있다. 국왕층에서는 특정 나부의 지나친 세력비대를 막기 위하여 나부내의 통치행위에 대해 간여하거나 다른 나부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서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전 맹주국이었던 沸流那部를 견제하기 위하여 탐학을 이유로 部長을 교체해 버리거나 椽那部 출신과 지속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어 계루부 왕실의 협조세력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나부의 세력이 강화되자 東川王과 中川王代에는 관나부 출신의 여자를 小后로 맞아들였고, 美川王代에는 연나부 출신이 아닌 周氏를 왕비로 삼기도 하였다. 이외에 나부 내부의 통합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部 내부세력들을 개별적으로 분리·조종하기도 하였다. 國相은 明臨氏에서, 왕비는 于氏나 椽氏에서 배출토록 한 것은 부 내부세력들의 결집을 막아 연나부의 세력이 지나치게 비대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였다.<sup>4)</sup>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나부의 해체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국왕층은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켜 왕권을 강화하려 했고, 귀족들은 자신의 기존 세력기반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런 양자간의 관계는 점차 왕권강화와 중앙집권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갔다. 이에 귀족들은 왕을

3) 여호규, 〈3세기 고구려의 사회변동과 통치체제의 변화〉(《역사와 현실》 15, 한국 역사연구회, 1995), 162~163쪽.

4) 金賢淑, 〈高句麗 初期 那部の 分化和 貴族의 姓氏〉(《慶北史學》 16, 1993), 38~40쪽.

지지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관료적 귀족으로 전신하거나, 아니면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왕에게 맞설 수밖에 없었다. 전자의 경우 중앙귀족이 되어 계루부로 옮겨가 방위부에 거주하면서 관등제에 의해 등급지위저왕 아래 개별적으로 편제되었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세력기반인 나부에 머물다 점차 중앙정치에서 배제되고 끝내는 낙오됨으로써 나중에는 나부의 지배권조차 상실하게 되었다.

나부 귀족들의 이주로 계루부는 확대되어 방위부로 편제되었고, 정치권력과 부의 중심지인 王京으로 발전하였다.<sup>5)</sup> 그러나 나부들은 단위정치체로서의 통합력과 독자성을 점차 상실하고 몇 개의 친족집단들로 분열된 후, 다시 가문별로 세분화되어 감으로써 해체되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배하였다. 이에 따라 국왕 주도하의 공동정치 운영방식인 나부통치체제도 3세기 말경에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었다. 요컨대 반자치적인 정치집단들에 의한 다원적이고 간접적인 통치에서 국왕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이고 중앙집권적 정치운영방식으로 변화·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부통치체제의 해체는 사회 전반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나부체제에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로의 교체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지는 않았다. 즉 나부의 분해와 독자성의 소멸, 나부내로의 국왕권 침투가 진행되면서 점진적으로 중앙집권화가 진행되었다. 영토의 확장으로 인한 국력팽창은 그것을 가속화시켰다.

4세기초의 미천왕대에는 낙랑과 대방 등 漢郡縣을 마침내 축출하고 西安평을 확보하였다.<sup>6)</sup> 그리고 後趙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고, 말갈계 종족 일부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였으며, 慕容氏세력을 성공적으로 견제하였다.<sup>7)</sup> 이러한 대외군사활동의 성공에 따라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수취기반이 확대되었다. 이에 힘입어 내부적으로 왕권강화와 중앙집권적 지배질서의 구축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다.

5) 林起煥, 앞의 책, 55~60쪽.

6) 《三國史記》권 17, 高句麗本紀 5, 미천왕 12년 8월.

7) 《晉書》권 105, 載記 5, 後趙石勒 建平 원년.

《梁書》권 54, 列傳 48, 東夷 高句麗.

그런데 故國原王 12년(342)에 前燕王 慕容皝의 대대적인 침공으로 수도가 거의 파괴되고 남녀 5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 가는 등 심한 타격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모용씨세력은 고구려의 제도전을 막기 위하여 미천왕의 시신을 실어간 후 그 다음해에야 돌려보내고, 왕모 周氏를 끌고가 13년 동안이나 인질로 잡아둠으로써 고구려로 하여금 굴욕적인 외교를 감수하게 하였다.

前燕은 370년에 前秦에게 멸망당하였다. 이 때 고구려로 도망온 太傅 慕容評을 전진에 보냄으로써 고구려와 전진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sup>8)</sup> 이에 따라 고구려의 서쪽 경계는 한동안 안정되었으며, 西進政策을 잠시 중단해야 했다.<sup>9)</sup> 그리하여 고구려는 영역확대의 주방향을 남쪽으로 돌려 신흥세력인 백제와 帶方故地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국원왕이 백제병의 流矢에 맞아 전사하였다.<sup>10)</sup> 이같은 대외전쟁에서의 잇따른 패배로 인하여 고구려의 내부적 발전도 한동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고구려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고국원왕대의 이같은 군사활동의 실패는 단순히 전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즉 사회변화에 따라 나부체제가 해체된 이후 전반적인 면에서 중앙집권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꾸준히 전개되어 온 영토확장과정에서 편입된 동예, 옥저, 말갈계와 거란족 일부 집단, 요동지역의 유이민, 낙랑과 대방지역민 등과 본래의 고구려민 등 복잡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배타적이고 분리적인 인식과 태도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전쟁과정에서 통합된 힘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왕이 전사한 위기상황에서 집권세력들은 국왕측이나 귀족측 구분없이 모두 체제정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확대된 영토와 인민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의식적인 변화와 제도의 정비が必要하다는 것도 인지하게 되었다.

8) 《三國史記》권 18, 高句麗本紀 6, 고국원왕 12년 11월·13년 2월·25년 12월·40년.

9) 朴性鳳, 〈廣開土好太王期 高句麗 南進의 性格〉(《韓國史研究》 27, 1979).

10) 《三國史記》권 18, 高句麗本紀 6, 고국원왕 41년 10월.

## 2) 소수림왕대의 체제정비

### (1) 불교의 도입과 태학의 설립

小獸林王은 이처럼 지배층들이 공통적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기에 즉위하였다. 따라서 그는 구체제의 잔재를 일소하고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체제로 정비해 나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소수림왕은 재위 2년(372)에 불교를 도입하고 태학을 설립하였다.

고구려에는 前秦으로부터 승려 順道가 불상과 경문을 가져오면서 불교가 전래되었다. 이후 소수림왕 4년에는 승려 阿道가 왔고, 다음해에는 省門寺와 伊弗蘭寺가 창건되었다.<sup>11)</sup> 그러나 그 이전에 東晉의 승려인 支遁道林이 高麗道人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식적인 전래 이전에 이미 사회일각에서는 불교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미천왕대 후 조와의 교류나 낙랑·대방지역의 편입 등을 계기로 불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sup>13)</sup>

이러한 상황에서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다. 하나는 전진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고국원왕이 전사하면서 백제와의 전쟁이 더욱 빈번하고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므로 서쪽 국경의 안정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고구려는 전진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불교를 받아들인 것도 그와 같은 외교행위의 일면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

11) 《三國史記》권 18, 高句麗本紀 6, 소수림왕 2년 6월·4년·5년 2월.

申東河, 〈高句麗의 寺院造成과 그 意味〉(《韓國史論》 19, 서울大 國史學科, 1988).

12) 《梁高僧傳》권 4, 竺潛·法深傳.

《海東高僧傳》권 1, 釋亡名傳.

李基白, 〈三國時代 佛教 受容과 그 社會的 意義〉(《歷史學報》 6, 1954;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5쪽).

13) 全虎兌, 〈5세기 高句麗 古墳壁畫에 나타난 佛教的 來世觀〉(《韓國史論》 21, 서울大 國史學科, 1989), 52~54쪽.

는 北朝불교의 호국사상이 필요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불교도입 이전까지는 여전히 각 정치집단별로 전해 내려온 다양한 재래신앙이 고구려인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어서 의식적으로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대외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자 국가공동체의식을 새롭게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국민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고차원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체계이면서 국왕 중심의 호국불교인 북조불교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교는 소수림왕 이후의 왕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보급되었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故國壤王 9년에는 “불교를 받들고 믿어 복을 구하라”는 하교를 내렸고, 廣開土王 2년에는 평양에 9寺를 창건하는 등 불교를 크게 장려하였다. 그 결과 불교는 점차 고구려인에게 파급되어 지배층의 對民觀 변화와 고구려인의 화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고등종교인 불교를 믿게 되면서 국내에 공존하는 이질적 성격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상호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서로 융합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이 마련되었다. 또 불교는 국가공동체의식을 우선으로 해서 전고구려인이 국왕을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게 하였다. 새로운 구성원과 기존의 집단예민 그리고 이전의 5나부민이었던 존재들 모두 국왕의 동일한 백성이 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동시에 국왕권을 뒷받침해 주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불교는 당시 사회경제적으로 성장한 지방민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불교는 業이나 윤회사상을 통하여 신분제사회를 유지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실사회에서의 노력에 따라 내세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능동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게 하는 일면도 있었다.<sup>14)</sup>

당시 지방민들은 전대에 비하여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지위가 향상되었으므로 의식적인 면에서의 성장도 필요하였다. 즉 중앙권력과 연결지어 자신의 지위를 개선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고구려인으로서의 생활을 유지해갈 필요가 있었다. 4세기 이후는 삼국이 총력전을 벌이는 시기였으

14) 南希叔, 〈新羅 法興王代 佛教受容과 그 主導勢力〉(《韓國史論》 25, 서울大 國史學科, 1991), 32~34쪽.



므로 왕을 비롯한 지배층으로서도 이들의 협조와 긍정적인 현실대응의 자세를 필요로 했다. 불교의 인과응보사상은 이런 면에서 지방민 특히 재지 지배층의 현실인식과 생활자세의 변화를 이끌어줄 수 있었다. 이들은 舊族 長출신의 귀족들보다 오히려 국왕의 지지층으로 부각될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요컨대 4세기에 도입된 불교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구려국 주민의 융합과 신흥세력의 등장을 뒷받침해 주면서, 동시에 왕권강화와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사상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sup>15)</sup>

한편 太學은 국가차원에서 유교적 정치이념에 충실하고 그 정치체도의 운영에 능숙한 인재를 키우고자 창설한 교육기관이다.<sup>16)</sup> 중앙집권적 정치제도에 적합한 관리를 양성하여 확대된 영토와 복잡다양한 성격의 내부 구성원들을 체계적으로 통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태학설립은 유교정치이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고구려정부의 적극적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유교사상은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운영에 필요한 정치이념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학에서의 교육내용은 유교의 전반적인 면을 심도있게 망라했다기보다는 「忠」을 강조하는 데 치중했을 가능성이 크다.<sup>17)</sup>

그리고 태학에서의 유교적 소양교육으로 중앙집권적 체제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귀족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변화된 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재로 만들면서 동시에 의식 자체도 관료적 성격으로 서서히 전환시켰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학설립은 다음해에 행해진 율령반포를 위한 포석으로 그와 상호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15) 李萬烈, 〈高句麗 思想政策에 대한 몇가지 檢討〉(《柳洪烈博士華甲紀念論叢》, 1971), 26쪽.

16) 盧重國, 〈高句麗律令에 關한 一試論〉(《東方學志》21, 1979), 110쪽.

17) 李基白, 〈儒敎受容의 初期形態〉(《韓國民族思想史大系》2, 1973; 《新羅時代의 國家 佛敎와 儒敎》, 韓國研究院, 1978, 129쪽).

金哲堧, 〈三國時代의 禮俗과 儒敎思想〉(《大東文化研究》6·7, 1970; 《韓國古代 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195~197쪽).

## (2) 율령반포의 의의

소수림왕의 개혁의지와 그것의 추진방향은 불교의 도입과 태학의 설립에서 엿볼 수 있지만, 보다 본격적인 체제정비는 재위 3년(373)에 행해진 율령반포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율령은 중국에서 성립되고 발전한 성문법으로서 律은 형벌법전이고 令은 비형벌적 민정법전으로서 행정법·사법·소송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sup>18)</sup> 국가를 구성한 다양한 세력집단들마다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고유의 관습법을 하나로 일원화할 수 있는 선진적인 성문법의 보유와 그것에 입각한 체계적인 국가운영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발전을 이루는데 긴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율령제는 중국 주변의 여러 민족에게 전파되었는데,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율령의 기본사상인 유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또 율령을 시행할 수 있는 국가권력의 강화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배체제가 성립되어 있어야 했다. 고구려의 경우에는 이미 태학을 설립할 정도로 유교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또 미천왕 이후 진전된 중앙집권화로 인하여 집권국가의 체제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으므로 율령을 제정·반포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진 이후 당시 고구려에서는 율령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고조되어 있는 상태였다. 즉 중국대륙과 한반도내에서의 정세변화에 따른 대외관계의 변동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미천왕대 이래 정복활동의 결과 넓어진 영토와 복잡하고 다양해진 국내의 구성원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습법만으로는 효과적인 지배가 어렵게 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고구려는 발전된 중국의 율령법을 받아들여 체제정비를 도모하게 되었다.

고구려의 율령은 晉의 泰始律令을 모범으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소수림왕 3년에 반포된 사실만 기록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남아 있지 않아 상세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존 사서에 남아 있는 율령과 관계된 사료에서 율령의 편목을 추정하고 내용을 정리한 결과, 국가통치

18) 田鳳德, 〈新羅의 律令攷〉(《서울大論文集》人文社會科學 4, 1956).

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규범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9)</sup>

그런데 중국 주변의 민족들이 율령을 받아들일 때에는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국가체제라는 율령제의 기본적 특징을 수용하면서도,<sup>20)</sup> 부분적으로는 자국의 실정에 맞게 취사선택하거나 고유의 전통을 살리는 쪽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나라마다 율령제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했다. 고구려 역시 중국율령을 수용하였지만 독자적인 면을 많이 보이고 있다. 즉 刑을 적용하는데 엄격함이 보이고, 유교사상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고구려의 전통적 특질을 상당히 갖고 있는 등 나름대로의 개성을 지니고 있다.<sup>21)</sup> 이것은 고구려가 전통적인 고유법을 온존시키는 가운데 시대에 부응하여 중국 율령의 영향을 받아 고대법체계를 확립시켜 나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sup>22)</sup>

이와 같이 건국 이후 진행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이 집약되어 이루어진 율령의 제정과 반포에 의해 고구려는 비로소 성문법시대로 돌입하였다. 이전의 다원적인 관습법체계를 일원적인 공법체제로 종합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를 계기로 형법관계뿐 아니라 관등제와 관직제, 조세제 및 제사, 喪葬, 學, 樂, 의복 등에 이르기까지 정치운영과 사회생활 전반을 규제하는 공법체계를 수립하여 성문화함으로써 일정한 기준과 원리하에 국정이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의 모든 구성원이 율령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배를 받게 되어,<sup>23)</sup> 새로 편입된 주민들도 짧은 기간 안에 완전한 고구려민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고구려인들과 다양한 새 편입민들 사이의 상호 배타적인 면도 보다 완화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곧 고유성과 전통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방적이고 국제적 성격의 독창적인 고구려문화를 성립·발전시키는 하나의 요인

19) 盧重國, 앞의 글, 103~122쪽.

20) 井上光貞, 〈律令國家の形成〉(《岩波講座 世界歴史》6, 1974), 41~42쪽.

21) 盧重國, 앞의 글, 176~182쪽.

韓容根, 〈三國時代의 刑律研究〉(《韓國史의 理解》古代·考古 1, 신서원, 1991), 169쪽.

22) 朱甫嗽, 〈新羅時代의 連坐制〉(《大丘史學》25, 1984), 9쪽.

23) 盧重國, 앞의 글.

姜鳳龍, 〈三國時期의 律令과 ‘民’의 存在形態〉(《韓國史研究》78, 1992).

이 되었다.

요컨대 나부체제의 해체 이후 진행된 여러 분야에서의 변화를 수용하여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준거들을 마련하여, 이를 율령으로 법제화함으로써 변화된 사회상황과 제도 사이의 괴리를 없앴다. 이로써 국가의 발전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었고 그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국가가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광개토왕과 장수왕대를 거치면서 이룩된 고구려의 급속한 발전은 바로 율령정치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구려 율령제는 이후 정치, 사회적 성장에 따라 몇 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발전되어 갔고, 신라에서 율령을 제정할 때에 그 모범이 되기도 하였다.

### 3) 4세기말 이후의 체제정비

4세기말 이후에는 소수림왕의 개혁작업과정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정치·군사·경제·사회·사상 등 전반적인 면에서 체제정비가 진행되었다.

먼저 중앙정치면을 보면, 고구려 전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중앙통치와 각 나부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자치적인 통치로 이원화되어 있던 통치체제가 중앙집권화되면서 일원화되었다. 이와 함께 다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관등제가 兄系와 使者系 官位를 중심으로 하는 일원적 관위제로 재편되었다.<sup>24)</sup> 이 시기에는 형계와 사자계 관위가 모두 각각 분화되고 있는데 이는 영역의 확대에 따라 편입된 다수의 지배층들을 중앙집권적 지배질서 속으로 편제할 필요가 있었고, 또 수취관계 업무를 담당할 관인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관등제는 이후 등급이 더 세분화되고 새로운 관등도 첨가되면서 더욱 발전되었다.

관등제의 정비와 더불어 관직도 분화되고 관부도 증설되었을 터인데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이 때 태학이 설치되었으

24) 金哲堉, 〈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1956;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130~135쪽).

武田幸男, 〈高句麗官位制の史的展開〉(《朝鮮學報》 86, 1978; 《高句麗史と東アジア》, 東京; 岩波書店, 1989, 368~370쪽).

므로 國子博士・大學士 등의 관직이 소수림왕대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국초부터 중앙정치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던 제가 회의가 관료적 귀족들의 회의체인 군신회의적 성격으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존재했다.<sup>25)</sup> 물론 국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귀족회의의 역할도 축소되고 발언권도 약화되었겠지만, 회의를 통해 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치하는 전통적인 정치운영방식은 말기까지도 지속되었다.

이의 광개토왕 6년(396)에 왕이 後燕의 慕容寶로부터 ‘平州牧遼東帶方二國王’이란 작위를 받고 처음으로 長史, 司馬, 參軍을 설치했다는 기사에서<sup>26)</sup> ‘將軍府’가 개설되었다고 보거나,<sup>27)</sup> 〈泉男生墓誌銘〉에 보이는 ‘中裏大兄’과 ‘中裏位頭大兄’이라는 관등에서 ‘中裏府’가 존재했다고 보기도 한다.<sup>28)</sup> 그리고 幽州刺史 鎮의 墨書銘에 보이는 中裏都督, 장사, 사마, 참군 등의 관직에서 ‘幕府制’의 실시를 추정하기도 한다.<sup>29)</sup> 이와 같은 조직들은 모두 단편적인 기사를 통해 그 존재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어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운영실태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새로운 관직과 관부 및 관등명의 출현이 곧 당시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발전양상을 보여주는 것임은 분명하다.

체제정비는 지방통치제에서도 이루어졌다. 즉 다원적이고 간접적인 집단지배체제에서 城을 단위로 한 일원적이고 직접적인 통치체제로 바뀌었다.<sup>30)</sup> 지방관의 존재는 烽上王代에 新城宰와 新城太守를 역임했던 高奴子에게서 초기적인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서쪽 국경의 신개척지이자 방어의 중심지역인 新城에 ‘宰’로 파견된 北部小兄 고노자는 慕容廆가 침략했을 때 공을 세워 大兄으로 승급했고, 이후 ‘太守’로 승진하였다.<sup>31)</sup>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25) 金賢淑, 앞의 글(1995).

26) 《梁書》권 54, 列傳 48, 東夷 高句驪.

27) 徐永大, 〈高句麗 平壤遷都의 動機 —王權 및 中央集權的 支配體制的 強化과정과 관련하여—〉(《韓國文化》2, 서울대 韓國文化研究所, 1981), 111~112쪽.

28) 盧重國, 앞의 글, 139~140쪽.

29) 林起煥, 〈4세기 고구려의 樂浪・帶方地域 경영〉(《歷史學報》147, 1995), 36~37쪽.

30) 武田幸男, 〈廣開土王碑からみた高句麗の領域支配〉(《東洋文化研究所紀要》78, 1978; 앞의 책, 100~102쪽).

31) 《三國史記》권 17, 高句麗本紀 5, 봉상왕 2년 8월・5년 8월.

국경 요새지에 성을 쌓은 후 중앙으로부터 관인을 파견하여 지방행정과 군사업무를 겸임하게 하는 것이 직접적인 지방지배의 초기 형태였다.<sup>32)</sup> 즉 국경방위에 치중하면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지배층을 매개로 하여 조세를 수취하는 據點城 중심의 부분적 지배형태였다.

4세기에 들어와 고구려는 축성작업을 활발하게 벌여 지방통치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그리고 4세기 후반부터는 주변의 자연촌과 그 내부의 자연촌까지 파악하여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전면적인 영역지배로 점차 발전하였다. 〈牟婁婁墓誌〉에 보이는 ‘北夫餘守事’나 〈中原高句麗碑〉에 보이는 ‘古牟婁城守事’는 이미 영역지배를 행하는 한 단계 발전한 지방관이었다. ‘守事’의 상급 지방관이나 하급 지방관의 모습이 이 시기 자료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때에도 2단계 이상의 지방조직이 존재했을 것이다. 〈廣開土王陵碑〉에 의하면 각 성에서 守墓人을 戶단위로 징발하는데, 총인원을 정해진 숫자에 맞추어 차출하였고, 새로 정복한 지역의 여러 성과 그 하위단위인 村의 수가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광개토왕과 장수왕대에는 이미 자연촌의 인구까지도 국가에서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볼 때 당시의 지방통치는 하급 지방관이 지배하는 권역 몇 개를 ‘수사’가 관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 같다.

이후 지방통치조직은 4세기 중·후반에 정비된 중앙집권적이고 일원적인 제도를 기본으로, 더욱 체계화되어 대·소성을 3단계로 조직한 보다 전면적이고 완비된 영역지배방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물론 이 때에도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특수한 役에 종사하는 집단천민적 성격의 존재들이 있었지만, 이들도 역시 국가가 관할했으므로 일원적인 직접지배가 기본적으로 관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제도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군사제도이다. 당시의 지방관은 民政官이자 軍政官적 성격을 가졌다. 따라서 군사조직이 곧 지방조직의 일면을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33)</sup> 광개토왕의 신라 구원전에 步騎 5만이 동원

32) 琴京淑, 《高句麗 前期의 政治制度 研究》(高麗大 博士學位論文, 1995), 128~133 쪽.

33) 山尾幸久, 〈朝鮮三國의 軍區組織〉(《古代朝鮮と日本》, 東京; 龍溪書舍, 1974), 154

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4세기 중·후반부터는 일반민도 병사로 동원되었다. 또 각지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지방군이 지방통치의 중심권역에 있는 주요 성에 편성되어 있었다.<sup>34)</sup>

당시는 부족한 산물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약탈전쟁을 벌이던 단계에서 벗어나, 고대국가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삼국이 경쟁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인민을 확보하려고 전쟁하던 시기였다. 전쟁의 양상이 보다 격화되었고 대규모의 인원과 물자가 동원되어 총력전을 벌였다.<sup>35)</sup> 그러므로 소수의 지배층들이 특권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고 下戶들은 그들의 사적인 예속민으로서 물자보급만 담당하던 것과는 달리, 일반민들도 국가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참전하였다. 이것은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정비과정에서 군사제도도 노비를 제외한 모든 민들을 군역에 동원하는 皆兵制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sup>36)</sup> 그리고 <광개토왕릉비>에 나오는 ‘王幢’이라 불리는 국왕 직속부대가 중요 군사력으로서 활동하였고, 이전에 존재했던 大加의 사적인 군사조직은 국가의 공적 질서 속에 모두 편입되었다. 광개토왕과 장수왕은 이같이 정비된 군사제도를 바탕으로 4세기 후반부터 대외정복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영토를 급격히 팽창시킬 수 있었다.

집권체제의 정비에 따라 신분제 역시 정비되었다. 자료가 없어 신분제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고구려인 전체가 율령의 지배를 받게 됨에 따라 이제는 이전의 集團隸民들도 같은 고구려민으로서 동일한 신분제 아래 편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광개토왕릉비>에 동예나 양맥지역의 출신자들에 대해 ‘舊民’이라 표현한 데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신분제는 크게 귀족·평민·천민의 세 신분층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각 신분층은 다시 분화되었다. 즉 지배계층인 귀족층도 승진의 한계를 가진 몇 개의 계층으로 나뉘어지고 평민들도 경제적 부의 차이에 따라 다시 몇 개의 계층으로 세분되었다.

---

~161쪽.

34) 徐永大, 앞의 글, 112~113쪽.

35) 金瑛河, 《三國時代 王의 統治形態 研究》(高麗大 博士學位論文, 1988), 124~127쪽.

36) 李基白, <高句麗의 肩堂>(《歷史學報》35·36, 1967), 51~52쪽.

이와 함께 조세제도 정비되었다. 전국의 민을 公民으로 자리매김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무분별한 수탈은 지양되었다. 그리고 집단을 단위로 하여 수시로 공납을 바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세를 수취하게 되었다. 人頭稅 중심의 조세제였으므로 人丁의 숫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등급화하여 수취했을 것인데, 6·7 세기가 되면 인두세와 더불어 재산의 보유정도에 따라 상·중·하의 3등호로 구분하여 호세를 부과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sup>37)</sup>

지금까지 살펴본 4세기말 이후의 체제정비에서 나타난 하나의 지향성은 중앙집권체제의 구축이란 점이다. 이것은 곧 국왕권의 강화와 국왕중심의 정치운영의 지향이라 할 수 있다. 왕권강화와 중앙집권화는 동시에 진행되는 사항이면서 때로는 양자가 서로 이끌고 밀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수림왕 이후 전개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구축과정에서 왕권강화작업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 일환으로 먼저 고구려왕계를 현왕실 중심으로 일원적으로 종합하되 부여지역의 병합이라는 당대의 현실에 바탕하여 계루부왕실의 북부여출자설을 공식적으로 정리하였다.<sup>38)</sup> 그리고 주몽이 天帝의 핏줄을 이은 天孫이요 농업신인 河伯의 외손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건국신화를 정리함으로써 시조의 신성성을 이어받은 왕실의 존엄성을 부각시켰다. 계루부의 시조인 주몽을 고구려인 전체의 시조로 굳건하게 위치지워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 구성원의 결집을 도모하였다. 이 때 특히 대외정복활동으로 국력을 강화시킨 대무신왕을 강조함으로써 4세기 이후 고구려의 지향방향을 제시하고, 그를 위해 국왕 중심으로 힘을 결집할 수 있게 했다.<sup>39)</sup>

이와 동시에 이 때 정리된 王室世系에 따라 先王의 업적을 서술한 역사책도 편찬하였다. 이것이 곧 嬰陽王 11년(600) 《新集》을 편찬할 때 자료로 삼은 《留記》 100권인데,<sup>40)</sup> 소수림왕을 전후한 시기에 서술된 것으로 추정된

37) 김기홍,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역사비평사, 1991), 50~58쪽.

38) 盧泰敦, 〈朱蒙의 出自傳承과 桂婁部の 起源〉(《韓國古代史論叢》 5,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3).

39) 趙仁成, 〈4·5세기 高句麗 王室의 世系認識 變化〉(《韓國古代史研究》 4, 1991), 65~68쪽.



다.<sup>41)</sup> 국가가 공적으로 편찬한 역사서에 정리된 건국신화와 왕실세계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당시의 귀족들도 이 건국신화에 자신들의 출자 전승을 접목시킴으로써 가문의 유구성을 과시하고, 또 왕실과의 친밀성 등을 강조함으로써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였다.<sup>42)</sup>

왕실의 존엄성을 과시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고국양왕 9년에 “國社를 세우고 宗廟를 수리하라”는 명령을 유사에게 내린 바 있다.<sup>43)</sup> 국사의 건립은 계루부왕실과 소노부의 社稷이 병존하는 상태를 정리하여 현왕실 중심으로 사직체계를 일원화시킨 것을 의미한다.<sup>44)</sup> 또 종묘의 수리는 왕실의 정통성과 신성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광개토왕대에 수묘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장수왕이 부왕의 사후 그 유혼을 받들어 왕릉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제반 제도를 정비하여 역대 선왕의 왕릉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도 했다.<sup>45)</sup> 이러한 왕실의 존엄성을 고취하려는 노력은 광개토왕대의 비약적인 영토확장과 국제적 위상강화에 힘입어 큰 성과를 보게 되었다. 瑞鳳塚에서 출토된 延壽銘 銀合杆와 〈中原高句麗碑〉에 나오는 ‘太王’·‘大王’ 및 〈廣開土王陵碑〉와 壺杆塚 출토 壺杆, 그리고 〈牟頭婁墓誌〉에 나오는 ‘好太王’·‘好太聖王’·‘聖太王’ 등으로 미화된 왕호는 이 시기 강화된 왕권의 위상을 반영한다. 그리고 광개토왕 이후부터 葬地名에 따라 王號를 붙이던 전통적인 방식을 버리고 왕의 생전의 위업이나 특징, 치세시대의 성격을 표현하는 諡號와 같은 성격의 왕호를 사용하기도 했다.<sup>46)</sup>

소수림왕 이후 전개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체제정비를 통하여 고구려는 5세기대에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다.<sup>47)</sup> 永樂, 延壽 등 자체적인 연호를

40) 《三國史記》권 20, 高句麗本紀 8, 영양왕 11년 정월.

41) 李基白, 《우리 歷史를 어떻게 볼 것인가》(三星文化財團, 1976), 19쪽.

井上秀雄, 〈神話に現れた高句麗王の性格〉(《朝鮮學報》81, 1976), 44~45쪽.

42) 徐永大, 〈高句麗 貴族家門의 族祖傳承〉(《韓國古代史研究》8, 1995), 179~181쪽.

43) 《三國史記》권 18, 高句麗本紀 6, 고국양왕 9년 3월.

44) 趙仁成, 앞의 글, 71~73쪽.

45) 金賢淑, 〈廣開土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 守墓人의 社會的 性格〉(《韓國史研究》65, 1989).

46) 鄭早苗, 〈高句麗王系小考〉(《朝鮮歷史論集》上, 東京; 龍溪書舍, 1979).

사용하여 독자성을 과시하였고, 분열된 중국왕조들 사이에서 빛어지는 전쟁과 외교적 갈등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영토와 인민을 확장했으며, 남조와 북조 모두와 교류하면서 대등한 외교를 펼치기도 했다.<sup>48)</sup> 그리고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중국과 유목민세계와 대등하면서도 그와는 다른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여, 스스로 中華라 자처하는 天下觀을 대내외에 표방하였고, 그 천하관에 입각하여 백제·신라·동부여 등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지역 내의 국제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이끌어가려고 하였다.<sup>49)</sup> 이에 따라 백제 등이 반발하기도 하였고, 중국대륙의 왕조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北魏에서 고구려가 南齊 다음가는 강국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정도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sup>50)</sup>

〈金賢淑〉

## 2. 영토확장

高句麗가 4~5세기에 이르러 영역을 급속히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던 배경은 왕권 중심의 집권력의 성장과 국제정세의 변화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왕권의 강화는 대외정벌을 통한 영역확장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諸部에 대한 지배체제 및 관료조직의 정비, 父子상속에 의한 왕위 계승, 신앙의 통일이라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미천왕~ 소수림왕대에 행해진 일련의 시책은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정비를 뒷받침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국제정세의 변화는 중국측의 세력변동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중

47) 孔錫龜, 〈高句麗의 領域擴張에 대한 研究—四世紀를 중심으로—〉(《韓國上古史學報》6, 韓國上古史學會, 1991).

48) 徐榮洙, 《三國時代의 對中關係研究》(檀國大 博士學位論文, 1981).

49) 盧泰敦, 〈5世紀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人の 天下觀〉(《韓國史論》19, 서울大 國史學科, 1988).

50) 《南齊書》권 58, 列傳 39, 東南夷 高麗國.

국에서 쥘 왕실의 내부적인 혼란에 따른 급격한 국력의 약화로 변방에 있던 이민족이 봉기하게 되면서 진은 변방을 통치할 힘을 상실하게 되었다. 특히 고구려와 접하고 있던 요동지방에 대한 진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고구려는 요동지방으로의 진출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내외적인 상황 속에서 고구려는 광개토왕·장수왕대에 강력한 왕권의 확립과 함께 비약적인 영역의 확대가 가능할 수 있었다.

### 1) 요동 방면

고구려의 서부방면에 대한 영토확장은 주로 遼東地方을 대상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요동지방을 지배해오던 쥘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주변에 있던 鮮卑族인 慕容氏가 그 세력을 급속히 확장시켰다.<sup>1)</sup> 요동성에 주둔하고 있던 진의 東夷校尉 崔慤는 모용씨를 제압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있던 고구려 등과 연합하고자 하였다.<sup>2)</sup> 그러나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 결과 최비가 고구려로 망명하였으며<sup>3)</sup> 이어 요동지방은 모용씨의 세력권 내에 포함되었다.

고구려는 이와 같은 요동지방에서의 세력변화에 따른 혼란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요동지방에 대한 진출을 시도하였다.<sup>4)</sup> 이 과정에서 모용씨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되자 고구려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공세를 강화하였다. 美川王은 서쪽에서 모용씨와 강력히 대립하고 있던 後趙와의 연합을 통하여<sup>5)</sup> 모용씨를 압박해 나갔다. 그러자 중원으로의 진출이라는 야망을 품고있던 모용씨는 고구려에 대한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하였다.<sup>6)</sup> 즉 고국원왕 12년(342)에 모용씨는 고구려의 國都를 함락시켰는데 이같은 큰 타격을 받은 고구려는 이후 요동지방에 대한 진출노력을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sup>7)</sup>

1) 孔錫龜, 〈高句麗의 領域擴張에 대한 研究〉(《韓國上古史學報》 6, 1991), 130~135쪽.

2) 《資治通鑑》 권 91, 晉紀 13, 元帝 太興 2년.

3) 《三國史記》 권 17, 高句麗本紀 5, 미천왕 20년.

4) 《三國史記》 권 17, 高句麗本紀 5, 미천왕 20년·21년.

《梁書》 권 54, 列傳 48, 東夷 高句驪.

5) 《三國史記》 권 17, 高句麗本紀 5, 미천왕 31년.

6) 《三國史記》 권 18, 高句麗本紀 6, 고국원왕 12년.

이후 요동지방에서는 또 다시 세력변동이 일어났다. 前燕을 세워 제국으로까지 발전하였던 모용씨가 망하고<sup>8)</sup> 그 뒤를 이어 氏族 출신의 前秦이 요동지방을 장악하였다. 고구려는 당시 고국원왕의 원수를 갚기 위한 백제공략에 역점을 두고 있어 서방에 힘을 분산시킬 여유가 없었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전진과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는데<sup>9)</sup> 얼마 후 전진의 멸망과 함께 이번에는 後燕 모용씨가 요동지방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고구려는 이러한 세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요동지방에 대한 진출노력을 재개하여 후연이 요동지방을 완전히 장악하기 이전에 요동지방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록이 참고된다.

(고국양)왕은 4만의 병력을 보내어 요동을 습격케 하였다. 앞서 (後)燕王(慕容)垂가 帶方王(慕容)佐를 龍城에 주둔케 한 바 있었다. (모용)좌는 고구려군이 요동을 습격하였다는 말을 듣고 司馬 郝景을 파견하여 구원케 하였으나, 아군이 이를 격파하고 마침내 遼東(郡)과 玄菟(郡)를 함락시키고 남녀 1만여 명을 포로로 하여 돌아왔다(《三國史記》권 18, 高句麗本紀 6, 고국양왕 2년 6월).

즉 고국양왕이 즉위 2년(385)에 요동군·현도군지방을 함락시켰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지배는 5개월여 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sup>10)</sup> 이후 요동지방은 후연의 세력권으로 편입되었고, 양국간에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이 때 고국양왕은 후연으로부터 ‘遼東帶方二國王’이라는 봉작을 받았다.<sup>11)</sup>

한편 만리장성 이북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선비족 拓拔氏가 고구려 고국양왕 3년에 盛樂(내몽고 呼和浩特市 부근)에서 魏王을 자칭하고 서서히 후연 모용씨를 압박해 왔다. 후연은 탁발씨와의 전투에서 계속 참패당하고 수도를 中

7) 孔錫龜, 앞의 글, 139~141쪽.

8) 池培善, 《慕容燕의 中國化政策과 對外關係》(延世大 博士學位論文, 1986), 126~234쪽.

9) 《三國史記》권 18, 高句麗本紀 6, 고국원왕 40년·소수림왕 2년 및 권 3, 新羅本紀 3, 내물이사금 26년.

《資治通鑑》권 104, 晉紀 26, 孝武帝 太元 2년.

10) 孔錫龜, 앞의 글, 143~144쪽.

11) 《北史》권 94, 列傳 82, 高麗.

山에서 요서지방의 龍城(朝陽)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후 후연의 영역은 요서·요동지방으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서방으로의 진출이 막히게 된 후연은 이전까지는 비교적 소홀하였던 동쪽으로의 진출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고구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양국 사이에 유지되었던 소강상태가 깨졌다. 그것은 후연의 先攻으로 나타났는데 후연왕 慕容盛은 광개토왕 10년(400)에 왕의 무례함을 구실로 내세워 고구려를 공격해 왔다.<sup>12)</sup> 고구려는 후연의 침공에 강력히 대처하였고 나아가 후연에 대한 응징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참고된다.

(광개토)왕이 군사를 보내어 宿軍城을 공격케 하니 (後)燕의 平州刺史인 (慕容)歸가 성을 버리고 도망갔다(《三國史記》권 18, 高句麗本紀 6, 광개토왕 11년).

고구려가 광개토왕 12년 후연의 평주자사가 주둔하고 있던 숙군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는 것이다. 숙군성은 이 때의 고구려작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그 위치는 遼河 서편의 大凌河유역에 있는 오늘날의 義縣·廣寧부근으로 비정된다.<sup>13)</sup> 또한 숙군성에 있던 후연 평주자사의 도망사실에서 고국양왕 2년(385)에 요동지방의 平郭에 설치된 바 있던<sup>14)</sup> 후연의 평주 치소가 그 사이에 대릉하유역의 숙군성으로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구려의 요동진출 노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고구려의 공세는 광개토왕 14년에도 이어져 역시 요하를 건너 대릉하유역에까지 미치고 있다.<sup>15)</sup> 이처럼 고구려의 공격이 요하를 건너 요서지방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이 당시 고구려는 이미 요동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구려의 적극적인 공세에 대하여 후연 역시 고

12) 《三國史記》권 18, 高句麗本紀 6, 광개토왕 9년.

이 때 후연은 고구려의 新城, 南蘇城을 함락시키고 700여 리의 땅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5천여 호의 포로를 잡아가지고 돌아가는 전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이 해는 고구려가 신라 구원병 5만을 낙동강 유역에 파견한 해여서(영락 10년) 혹시 후연에 대한 패전이 이 사실과 연관된 것은 아니었을까 추정해 본다.

13) 前內互, 《晉代の滿洲》1(丸善株式會社, 1913), 277~278쪽.

14) 《資治通鑑》권 106, 晉紀 28, 孝武帝 太元 10년.

15) 《晉書》권 124, 載記 24, 慕容熙.

구려에 대한 반격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빼앗긴 요동지방에 대한 수 차례의 공격으로 나타났다.<sup>16)</sup> 그러나 후연의 공격은 대부분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는데<sup>17)</sup> 이는 광개토왕에 의한 강력한 요동진출정책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sup>18)</sup>

후연과의 치열한 투쟁 끝에 요동지방을 확보한 고구려는 후연에서 내부 반란으로 새로이 高雲이란 인물이 등장하여 北燕을 세우게 됨에 따라 북연과 우호관계를 맺게 되었다. 고운은 고구려인인 高和의 손자로서 慕容寶의 양자가 되었다가 이 때 즉위하였다.<sup>19)</sup> 광개토왕은 사신을 보내 동족의 우의를 표하였고, 고운이 이에 답례하는 등 양국간에 우호적 관계가 성립되었다.<sup>20)</sup> 그러나 고운이 2년 만에 피살되었고 이어 북연에서는 馮氏가 집권하게 되었다(409). 북연은 서쪽에서 서서히 압박해 오는 北魏에 의해 계속 위축되어 갔고 마침내 고구려 장수왕 20년(432)에 이르러서는 북연왕 馮弘이 고구려로 망명하였다.<sup>21)</sup> 당시 고구려는 풍홍의 망명의를사를 확인하고 군대를 파견하였다.<sup>22)</sup> 북위군과의 대치 끝에 먼저 북연의 수도인 和龍城에 들어간 고구려군은 풍홍을 고구려로 호송해 왔다. 이 때 북위군은 고구려군의 위세에 놀려 정면으로 대응·공격하지 못하였다. 이후 요동지방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고구려는 북연을 멸망시키고 요서지방을 장악한 북위와 서로 대치하게 되었다. 고구려의 요동지방 지배는 이후 고구려의 멸망시까지 지속되었다.

16) 後燕의 고구려 공격에 대하여는 《三國史記》 권 18, 高句麗本紀 6, 광개토왕 14년·15년 참조.

17) 孔錫龜, 앞의 글, 147~148쪽.

18) 〈廣開土王陵碑〉에는 당시 고구려와 후연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확실치 않으나 광개토왕의 업적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임에는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비문의 일부가 결실되어 광개토왕의 작전 대상이 불분명한 永樂 17년조 기사를 對後燕戰 기사로 이해한 견해는 경청할 만한 것으로 생각한다(千寬宇, 〈廣開土王陵碑文再論〉, 《全海宗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一潮閣, 1982, 546~555쪽).

19) 《晉書》 권 124, 載記 24, 慕容雲.

20) 《三國史記》 권 18, 高句麗本紀 6, 광개토왕 17년.

21) 《三國史記》 권 18, 高句麗本紀 6, 장수왕 24년.

22) 《三國史記》 권 18, 高句麗本紀 6, 장수왕 23년·24년.

## 2) 백제 방면

고구려는 백제와의 사이에 介在해 있는 낙랑·대방군지역에 대한 정치적 지배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되자 백제방면으로의 진출을 기도하였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양국관계는 고국원왕 39년(369)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고 있다. 이 해에 고구려가 2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백제의 雉壤(白川)을 공격하였던 것이다.<sup>23)</sup> 그러나 백제 近肖古王의 반격을 받아 오히려 水谷城(新溪 부근) 북방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sup>24)</sup> 고구려는 고국원왕 41년 재차 백제를 공격하였으나 또 다시 패배하고 평양성에서 고국원왕이 전사하는 참패를 당하였다.<sup>25)</sup>

고국원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소수림왕은 대내적으로 내정정비를 통한 정치적 안정에 힘쓰고 대외적으로는 선왕의 복수를 위하여 백제공략에 온 역량을 집중시켰다. 당시 요동지방을 장악하고 있던 前秦과의 화해를 도모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요인을 없애는 한편 대외진출의 주된 방향을 백제쪽으로 향하였다. 소수림왕은 즉위 5년(375) 빼앗겼던 수곡성을 수복하는 등의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으나 수 차례에 걸친 대백제공략의 결과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 이 무렵 백제는 그 국력이 최고조에 달해 있던 근초고왕대를 전후한 시기여서 고구려의 침략을 능히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소수림왕을 뒤이은 고국양왕대까지도 계속되었다. 당시 고구려와 백제는 禮成江을 사이에 두고 白川·新溪사이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일 뿐이었다.<sup>26)</sup>

한편 4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제껏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던 백제방면으로의 진출은 외교관계의 변화와 더불어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즉 우호관계를 유지해오던 백제—신라간의 관계가 백제 禿山城主의 신라 도망사건을

23) 《三國史記》 권 18, 高句麗本紀 6, 고국원왕 39년.

24) 《三國史記》 권 24, 百濟本紀 2, 근구수왕 즉위년.

25) 《三國史記》 권 18, 高句麗本紀 6, 고국원왕 41년.

26) 孔錫龜, 앞의 글, 248~249쪽.

계기로 하여 갈등을 빚게 되었고,<sup>27)</sup> 새로이 고구려—신라간의 우호관계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고구려의 대백제공략전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광개토왕은 즉위하면서부터 백제공격에 나섰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즉위 원년(391) 7월에는 4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여 石峴城 등 10여 성을 탈취하였고 10월에도 백제의 요충지인 關彌城을 공격·함락시켰다.<sup>28)</sup> 이에 대응한 백제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았으나 고구려의 군사적 우세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이 당시 양국의 국경선은 임진강—예성강부근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sup>29)</sup> 이후 광개토왕은 즉위 6년에 水軍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여 阿利水(한강)를 건너 백제왕성(서울시 강동구 몽촌토성)<sup>30)</sup>을 공격하니, 백제 阿莘王은 남녀 1천 명과 細布 1천 필을 바치고 “앞으로는 영원히 고구려의 奴客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정벌전에서 광개토왕은 58城 700村을 취하고 백제의 王弟·大臣 10여 인을 이끌고 돌아오는 대전과를 거두었다.

고구려군에 의해 국도가 공격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백제는 倭·任那加耶 등과 연합하여 대항하였다. 이는 《삼국사기》 및 〈광개토왕릉비〉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즉 백제는 아신왕 6년(397) 倭에 태자 腆支를 파견하여 왜와의 연합을 구체화시켰다.<sup>31)</sup> 이어 백제는 몇 차례 고구려 침공을 기도하였고<sup>32)</sup> 왜와 연합하여 왜·가야연합군으로 하여금 신라를 공격케 하였으나(〈광개토왕릉비〉영락 9년조), 광개토왕의 반격으로 오히려 고구려군이 신라·가야 지역까지 진출하였다(영락 10년조). 이후에도 백제는 왜와 함께 고구려 영토인 대방군 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다(영락 14년조).

한편 고구려는 5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방면의 상황이 급변하자 대외진출

27)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내물이사금 18년.

28) 關彌城 공격 기사는 〈廣開土王陵碑〉의 永樂 6년조(396)에 포괄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武田幸男, 〈高句麗廣開土王紀の對外關係記事〉, 《三上次男博士頌壽紀念東洋史考古學論集》, 1979, 266~271쪽).

29) 孔錫龜, 앞의 글, 257쪽.

30) 崔夢龍, 〈漢城時代 百濟의 都邑地와 領域〉(《震檀學報》 60, 1985), 216~218쪽.

31) 《三國史記》권 23, 百濟本紀 3, 아신왕 6년.

이 시기 人質이 請兵使의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梁起錫, 〈三國時代 人質의 性格에 대하여〉(《史學志》 15, 檀國大, 1981), 55~56쪽 참조.

32) 《三國史記》권 23, 百濟本紀 3, 아신왕 7년·8년.



의 주된 방향을 후연쪽으로 전환하였던 것 같다. 이는 광개토왕의 대외관계 기사가 대후연방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삼국사기》 기록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sup>33)</sup>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대백제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쳐 양국의 전선은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다.

광개토왕을 이은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강력한 남진정책을 추진하였다. 고구려 장수왕 22년(434) 북위가 북연을 정벌하고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게 되자 장수왕은 북위와의 우호관계를 적극 추진하였다. 북위와의 관계가 안정되자 고구려는 백제에 대하여 재차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수 있었다. 고구려 조정의 남진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으로 나타난 평양 천도는 백제와 신라에게 위협이 되었고, 특히 고구려와 오랜 讐鳩之間이었던 백제에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백제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신라와 우호관계를 맺는데 성공하였다.<sup>34)</sup> 양국은 공동의 적이 된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하여 연합을 추진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나제동맹」이다. 또한 백제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통하여 고구려에 대한 봉쇄전략을 추진하였다. 즉 백제 蓋鹵王은 북위에 국서를 보내어 고구려의 남침에 따른 군사원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고구려의 대대적인 침공을 불러 일으켰다. 격분한 장수왕은 63년 9월에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이 참고된다.

고구려 왕 巨璉(장수왕)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王都 한성을 포위하였다. 왕은 성문을 닫고 능히 나가 싸우지를 못하였다. 고구려병이 군사를 4갈래로 나누어 협공하고 바람을 이용하여 성문을 불태우니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나아가 항복하려는 자도 있었다. 왕은 어찌할 바를 몰라 수십 기를 거느리고 성문을 나서 서쪽으로 달아나매 고구려인이 쫓아가 살해하였다(《三國史記》권 25, 百濟本紀 3, 개로왕 21년).

33) 《三國史記》권 18, 高句麗本紀 6, 광개토왕 11년·13년·14년·15년.

34) 盧重國,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係 變化에 대한 一考察〉(《東方學志》 28, 1981), 71쪽.

고구려군의 한성함락과<sup>35)</sup> 개로왕의 비극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고구려는 한강유역을 공략한 데 그치지 않고 이 지역을 영토화하려 하였으므로 백제는 수도를 남쪽인 공주로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고구려는 숙원이던 한강유역을 확보하고<sup>36)</sup> 이를 기반으로 하여 남양만에서 충청도 북부지역에까지 영토를 넓히게 되었다. 《삼국사기》地理志를 보면 한강 이남의 경기도 및 충청남북도 일부지역을 고구려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으니 즉 경기도 여주·안성 및 화성군 일대와 충청북도 진천·음성·괴산·충주 그리고 충청남도 직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는 6세기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 3) 신라 방면

고구려는 5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신라와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고구려는 대백제전략의 일환으로서 신라가 필요하였고, 신라 또한 고구려와의 우호를 통하여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양국관계 속에서 광개토왕의 「庚子年 出兵」이 있었다. <광개토왕릉비>에 따르면 왜·가야 연합군이 신라에 침입하자 신라는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광개토왕은 영락 10년(400) 경자년에 5만의 병력을 파견하여 낙동강유역에까지 진출해 신라에 침범한 왜·가야 연합군을 격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나가야까지 추격하여 이들을 공략하였다. 고구려는 이를 계기로 하여 죽령 동남쪽의 일부지역을 세력권내에 포함시켰을<sup>37)</sup> 뿐만 아니라 신라지역 깊숙히 군대를 주둔시키고<sup>38)</sup>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갔다. 5세기 이후 상당기간 동안 양국은

35) 이 당시의 漢城은 南城과 北城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고구려군은 먼저 북성을 공격하여 7일만에 함락시키고 남성을 공격하였다. 남성에 있던 개로왕은 도망하다 불잡혀 阿旦城 아래서 살해되었다(《三國史記》권 25, 百濟本紀 3, 개로왕 21년). 여기서 북성은 風納洞土城에, 남성은 夢村土城에 비정되고 있다(李道學, 《百濟 執權國家形成過程 研究》, 漢陽大 博士學位論文, 1991, 159~160쪽).

36) 고구려의 한강유역 점령에 따른 의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朴成鳳, <高句麗의 漢江流域 進出과 意義>(《鄉土서울》 42, 1984).

申滢植, 《韓國古代史의 新研究》(一潮閣, 1986), 260~282쪽.

37) 李道學, <高句麗의 洛東江流域進出과 新羅·伽倻經營>(《國學研究》 2, 1988).

고구려의 일방적 우위하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고구려는 평양천도 이후 남진정책을 본격화하였다. 내륙교통의 요충지인 충주에 國原城을 설치함으로써 신라에 대한 진출의도를 드러낸 것도<sup>39)</sup> 이때를 전후한 시기의 일로 보여진다. 이에 위협을 느낀 신라는 백제와의 연합 즉 「나제동맹」을 통하여 고구려의 압박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고구려는 소백산맥 일대의 영월—단양—중원으로 이어지는 방어선을 구축하여, 장차 있을 지도 모르는 신라의 도발을 경계하였다.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신라의 노력은 訥祗王 34년(450) 悉直原(삼척)에서 일어난 고구려 장수의 피살사건을 계기로 표면화하였다.<sup>40)</sup> 이어 慈悲王 7년(464) 신라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병 100인이 살해된 사건은<sup>41)</sup> 양국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이때 신라가 고구려에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당시 고구려가 백제와의 심각한 소모전 때문에 신라경영을 소홀히 한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sup>42)</sup> 고구려는 이와 같은 신라의 행동을 응징하려고 하였다. 장수왕 56년(468) 고구려는 ‘말갈’을 동원하여 신라 북방의 요충지인 실직성(삼척)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신라공격은 백제와의 관계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한 것 같다. 반면 신라는 고구려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비책을 서두르게 되었다. 한편 신라에 대한 영향력의 감퇴를 겪으면서까지 백제공략에 힘을 기울이던 고구려는 장수왕 63년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공격하여 한강 이북지역을 확보한 이후 신라에 대한 본격적인 공략에 나섰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북변을 공격하여 狐鳴(靑松)등 7성을 탈취하고 다시 彌秩夫(興海)로 진군하여…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소지마립간 3년).

38) 신라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군에 대하여는 〈中原高句麗碑〉에 기록된 ‘新羅土內幢主’라는 명칭과 《三國遺事》권 1, 紀異 1, 實聖王 및 《日本書紀》권 14, 雄略天皇 8년 2월 기록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

39) 李道學, 〈廣開土王代 高句麗의 南征과 國原城〉(《孫寶基博士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8) 참조.

40)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눌지마립간 34년 7월.

41) 《日本書紀》권 14, 雄略天皇 8년.

42) 李道學, 〈新羅의 北進經略에 관한 新考察〉(《慶州史學》6, 東國大, 1987), 25쪽.

즉 昭知王 3년(481)에 고구려군이 경주부근에까지 진출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소백산맥의 죽령 이남에서 영일만에 이르는 지역인 경상북도 울진·영덕·진보·임하·청송 등의 지역이 고구려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광개토왕대의 경자년 출병 이후 장수왕대에 이르는 기간 어느 시기에 고구려가 이들 지역에까지 영토를 넓혔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어 고구려는 백제—신라 연합에도 불구하고 이들 양국의 북부 교통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부 내륙지방까지 장악하였는데<sup>43)</sup> 이러한 상황은 5세기말~6세기초까지 지속되었다.

#### 4) 낙랑·대방군 고지

고구려가 4세기 초반 樂浪·帶方郡을 병합한 이후 이 지역을 어떻게 지배하였을까 하는 문제는 이에 대한 문헌기록이 없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단지 이 지역에 남아있는 고고학적 자료 등을 통하여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낙랑·대방군 故地에는 천여 기가 넘는 塼築墳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4)</sup> 이 전축분의 분포범위는 황해도와 평안남도의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sup>45)</sup> 그 축조시기는 대방군의 설치를 전후한 시기부터<sup>46)</sup> 5세기 초엽에까지<sup>47)</sup> 해당된다고 한다. 이것은 낙랑·대방군이 멸망된 이후 약 1세기가 지나도록 전축분을 매장풍습으로 하는

43)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金貞培, 〈高句麗와 新羅의 領域問題 —順興의 考古學 資料와 관련하여—〉(《韓國史研究》 61·62, 1988).

鄭雲龍, 〈5세기 高句麗 勢力圈의 南限〉(《史叢》 35, 1986).

——, 〈5~6世紀 新羅—高句麗 關係의 推移〉(《新羅의 對外關係史 研究》,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5, 1994).

金秉柱, 〈羅濟同盟에 관한 研究〉(《韓國史研究》 46, 1984).

44) 일례로 樂浪郡治址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진 낙랑토성 주변에는 1925년부터 1926년 사이 日人들에 의해 조사된 전축분만 해도 926기나 된다고 한다(關野貞外, 〈樂浪郡時代の遺蹟〉, 《古蹟調査特別報告》 4, 朝鮮總督府, 1927, 46~47쪽).

45) 梅原末治·藤田亮策, 〈樂浪〉坤(《朝鮮古文化綜鑑》 3, 1959), 80쪽.

46) 三上次男,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吉川弘文館, 1966), 43~45쪽.

47) 孔錫龜, 〈平安·黃海道地方 出土 紀年銘塼에 대한 檢討〉(《震檀學報》 65, 1988), 10쪽.

주거집단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들 집단은 서해안을 이용하여 중국의 각국과 교섭하며 그들의 年號 紀年을 채용하여 연대 표기에 사용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축분 축조집단들은 중국의 관직을 사용하여 주변에 과시하려 하였고 그들이 사용한 성씨조차 우리 삼국의 전통과는 다른 漢化된 성씨를 사용하고 있었다.<sup>48)</sup> 이와 같은 전축분 축조집단의 성격은 분명치 않지만 보다 중국화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sup>49)</sup> 주지하다시피 전축분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묘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문화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이들 집단과 고구려와의 정치적 관계는 율령을 바탕으로 한 고구려의 직접적인 행정지배를 받던 상태는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고고학적인 자료는 安岳 3號墳이다.

안악 3호분은 1949년 황해도 안악군에서 발견된 벽화고분인데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발견된 벽화고분 중 최대급에 속하는 것으로서 내부에는 화려한 내용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무엇보다도 학계의 관심을 끈 부분은 고국원왕 27년(357)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중국계 이주민인 冬壽란 인물에 대한 墨書銘이 쓰여져 있다는 점이다. 동수는 《資治通鑑》에 그 행적이 나타나 있는데, 前燕의 고위관직에 있었으나 내분으로 인하여 고국원왕 6년 고구려로 망명해온 인물이다.<sup>50)</sup> 명문의 주인공인 동수를 과연 고분의 被葬者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sup>51)</sup> 무덤안에 피장자 아닌 다른 사람의 묘지문을 기록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판단 이외에도, 4세기 중엽 당시 兩郡 故地의 또 다른 고고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무덤의 피장자를 동수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리라 생각된다.<sup>52)</sup> 그렇다면 4세기 중엽

48) 孔錫龜, 위의 글, 19~20쪽.

49) 孔錫龜, 위의 글, 27~28쪽.

50) 《資治通鑑》권 95, 晉紀 17, 成帝 咸康 2년.

51) 일찍이 발굴을 담당했던 北韓에서는 중국인 冬壽의 무덤으로 해석하였다가 1960년대 중반 이후 고구려왕 즉 美川王의 무덤으로 견해를 수정하였고, 다시 1980년대 후반부터는 故國原王의 陵으로 재수정하였다. 남한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론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피장자를 동수로 파악하는 입장이 우세하며 중국, 일본학자들의 대다수는 동수의 무덤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사적인 정리는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1(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59~71쪽.

52) 孔錫龜, 〈安岳 3號墳의 墨書銘에 대한 考察〉(《歷史學報》121, 1989).

황해도 안악군지역에는 중국계 이주민인 동수가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고고학적인 자료는 德興里 壁畫古墳이다. 이 고분은 1976년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에서 발견된 석실봉토분의 벽화고분인데, 그 안에서 다양한 내용의 벽화와 함께 피장자의 목서묘지명이 발견되었다. 피장자는 중국계 이주민인 ‘□□氏 鎮’이란 인물이다. 묘지문의 내용중에는 고구려 광개토왕대에 사용되었던 永樂이라는 고구려 고유의 연호기년(영락 18년; 408)이 확인되었다. 또한 그가 역임한 관직중에는 國小大兄이란 고구려 고유의 관직이 보이고 있어 고구려와의 연관성을 추정케 하였다. 고구려의 北中國지방 지배를 연상케 하는 幽州刺史라는 관직도 주목을 끌었다. 이처럼 중국계 이주민이면서 고구려의 강력한 지배를 받은 듯한 흔적이 농후한 덕흥리고분 피장자의 분명한 성격에 대하여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지만,<sup>53)</sup> 피장자와 고구려와의 정치적 상호관계 다시 말하면 고구려의 兩郡지역에 대한 지배방식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up>54)</sup>

이상과 같은 몇 가지의 고고학적 자료를 검토해 볼 때 양군 고지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방식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양군 멸망 이후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첫번째 접촉기사가 나타나는 4세기 중엽까지이다. 즉 《삼국사기》 등의 사료에 양국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4세기 중엽 이후(369)부터라는 점은<sup>55)</sup>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양군 고지에서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구려—백제간의 접촉기사는 고구려가 양군 고지에 대한 지배체제를 어느 정도 완료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 시기 고구려의 양군 고지에 대한 지배는 이 지역의 문화적·사회적 특수성을 인정하여 이들의 대표자를 내세운 이른바 간접지

林起煥, 〈4세기 고구려의 樂浪·帶方地域 경영〉(《歷史學報》147, 1995) 참조.

53) 덕흥리 고분의 피장자인 ‘□□氏 鎮’이란 인물의 계통에 대하여 학계의 대체적인 해석은 중국계 망명인으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학자들은 고구려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사적인 정리는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앞의 책, 79~90쪽.

54) 武田幸男, 〈德興里壁畫古墳被葬者の出自と經歷〉(《朝鮮學報》130, 1989), 29~32쪽. 林起煥, 앞의 글(1995), 28~43쪽.

55) 《三國史記》권 18, 高句麗本紀 6, 고국원왕 39년.

배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것은 당시 이 지역에 중국적 전통이 강한 전축분 축조집단의 존재나 안악 3호분에 나타난 다양한 중국적 요소 등을 통하여 짐작할 수가 있다.

둘째 단계는 4세기 중엽(369) 이후 5세기초 광개토왕대까지이다. 이 때 고구려는 양군 고지에 대하여 종래의 소극적인 지배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통제력을 강화·확립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5세기초를 하한으로 설정한 이유는 광개토왕대인 5세기초를 경계로 하여 중국적 전통이 강한 전축분이 축조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양군 고지에 있던 토착세력들의 정치·사회적 질서체제가 완전히 해체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덕흥리고분에서 볼 수 있는 고구려 고유의 연호기년(영락) 채택과 고구려의 관직 사용 등의 사실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고구려는 이후 광개토왕에 의한 대백제진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5) 기타 지역

고구려는 북쪽에 접하고 있던 夫餘방면으로의 진출을 기도하였다. 당시 부여는 285년 모용씨의 침략으로 인하여 왕이 죽는 등의 타격을 입고 옥저지방으로 피했다가<sup>56)</sup> 다시 나라를 세웠으나 세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였다. 고구려는 부여를 압박하여 그 근거지인 鹿山(吉林지역)을 장악하였다. 고구려의 압박에 밀려 서쪽의 農安부근으로 쫓겨간 부여는 346년 前燕의 침입을 받아 국도가 함락되는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sup>57)</sup> 전연군은 계속하여 동쪽으로 진군하였으나 고구려군의 반격을 받아 퇴각하였다.<sup>58)</sup> 고구려는 새로 장악한 부여지역에 대하여 관리를 파견하여 지배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牟頭婁무덤에 쓰여진 墓誌 중에 고구려의 부여지배를 상징해주는 ‘北夫餘守事’라는 관직 명칭을 통하여도 짐작할 수가 있다. 4세기 중반 이후 부여지역이 고구려의 영역화되었음은 장수왕 23년(435) 평양을 다녀간 北魏의 사신 李敖가

56) 《資治通鑑》권 81, 晉紀 3, 武帝 太康 6년.

57) 《資治通鑑》권 97, 晉紀 19, 穆帝 永和 2년 정월.

58) 武田幸男, 〈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朝鮮學報》99·100, 1971), 164~165쪽.

“고구려의 영토가 북으로는 舊夫餘에 이르고 있다”고 한 사실에서도<sup>59)</sup>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연에 의해 큰 타격을 입은 농안방면의 부여는 다시 국가를 세웠으나 그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고구려에 조공을 바치는 일방적인 종속관계에 놓여 있던 부여는<sup>60)</sup> 5세기 중엽 무렵 勿吉의 압박에 시달리다가 文咨明王 3년(494) 부여왕이 고구려에 항복함에<sup>61)</sup> 따라 그 영토가 완전히 고구려에 속하게 되었다.

한편 고구려의 동쪽에는 일찍이 부여에서 갈려져 나와 나라를 세웠던 또 다른 부여가 있었으니 <광개토왕릉비>에는 이를 東夫餘라고 기록하고 있다. 광개토왕은 즉위 20년(410) 몸소 군대를 인솔하고 동부여 왕성을 함락시켰으니 고구려 동쪽의 부여세력마저도 고구려에 복속되었다.<sup>62)</sup> 또한 고구려는 서북쪽으로도 세력을 확장하여 시라무렌河 유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sup>63)</sup> 契丹을 공격하였다.<sup>64)</sup> 뿐만 아니라 室韋에 鐵을 공급해주는 등<sup>65)</sup> 내몽고 동북부지역에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광개토왕릉비>에 따르면 牡丹江 동쪽, 연해주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sup>66)</sup> 肅慎도 영락 8년(398)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거란족 및 숙신족의 일부를 토벌하여<sup>67)</sup> 이 지역을 세력화한 고구려는 5세기 후반에 이르러 서북방으로의 진출을 기도하였다. 이 때 서북방에서는 勿吉이 세력을 확대해 오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고구려와 충돌이 있었다. 고

59) 《魏書》 권 100, 列傳 88, 高句麗.

60) 盧泰敦, <夫餘國의 疆域과 그 變遷> (《國史館論叢》 4, 1989), 43~44쪽.

61) 《三國史記》 권 19, 高句麗本紀 7, 문자명왕 3년.

62) 孔錫龜, <廣開土王陵碑의 東夫餘에 대한 考察> (《韓國史研究》 65, 1989).

63) 千寬宇, 앞의 글, 520~522쪽.

한편 그 소재지를 奉天방면 渾河일대로 比定하는 견해도 있다(武田幸男, <廣開土王碑からみた高句麗の領域支配>, 《東洋文化研究所紀要》 78, 東京大, 1979, 104~109쪽).

64) 《三國史記》 권 18, 高句麗本紀 6, 광개토왕 2년.

그런데 <광개토왕릉비>에는 거란 공격이 永樂 5년(395)의 일로 기록되어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65) 《隋書》 권 84, 列傳 49, 室韋.

66) 李丙燾, <廣開土王의 雄略>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387~388쪽.

67) 《三國史記》 권 18, 高句麗本紀 6, 광개토왕 2년

<廣開土王陵碑> 永樂 8년.



구려는 물길이 북위와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장수왕 67년(479) 외몽고 지방에 있던 柔然과 연합하여 거란족의 일파인 地豆于의 분할 점령을 시도 하였다.<sup>68)</sup> 지두우는 당시 흥안령산맥 주변인 시라무렌하 북방에 있으면서 서쪽으로 유연과 접하고 있던 종족으로 알려져 있다.<sup>69)</sup> 이는 당시 고구려의 영향력이 흥안령산맥 부근에까지 미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로써 고구려는 5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기까지 동쪽과 북쪽으로는 북부여 및 동부여지역을 정복하고 거란 및 숙신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서쪽으로는 요동지역을 영토화하였고, 남으로는 백제와 신라를 공격하여 한강유역 및 충청도 북부지역과 소맥산맥 이남의 영일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孔錫龜〉

### 3. 5~6세기의 대외관계

고구려는 영토확장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처해 나갔다.<sup>1)</sup> 5~6세기경 고구려는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지양하고 각국의 세력관계 변화에 따라 다중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200여 년에 걸친 장기적인 평화관계를 지속시켜 나갔다. 고구려가 남진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배경도 이와 같은 중국과의 평화관계 지속과 맞물려 있다.

한편 5세기를 전후한 고구려와 백제·신라와의 관계는 고구려가 남진정책을 추진하자 백제와 신라는 내외적인 세력관계의 변동에 따라 서로 연합·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sup>2)</sup> 즉 4세기말에서 5세기 중엽까지는 신라를

68) 《魏書》권 100, 列傳 88, 契丹.

69) 白鳥庫吉, 〈東胡民族考〉(《白鳥庫吉全集》4, 岩波書店, 1970), 185쪽.

1) 盧泰敦, 〈5~6世紀 東아시아의 國際秩序와 高句麗의 對外關係〉(《東方學志》44, 1984) 참조.

예속화한 고구려와 백제의 대결시기이고,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중엽까지는 고구려가 남진을 적극화함에 따라 백제와 신라가 연합하여 고구려와 대결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 1) 중국의 남북조와의 관계

새로운 북방의 강자로 北魏가 등장함으로써 중국은 오랫동안 지속되던 5호16국시대라는 극심한 혼란기가 끝나고 새로이 南北朝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즉 남조의 宋과 북조의 북위가 서로 중국의 통일을 지향하며 대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존립방식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광개토왕대에 급속한 국력의 신장을 이룬 고구려도 또한 새로운 국제질서 환경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아시아 질서의 한 축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한반도내 삼국의 대외관계도 이러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규정을 받아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sup>3)</sup>

後燕과의 치열한 투쟁 끝에 요동지방을 확보한 고구려는 북연을 사이에 두고 북위와 대립하였다. 고구려 장수왕 24년(436) 北燕王 馮弘의 고구려 망명사건은 새로이 국경을 접하게 된 고구려와 북위간의 갈등을 초래하였다. 고구려는 북위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풍홍을 살해하였지만 이는 또 다른 갈등을 야기시켰다. 북위를 견제하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던 송이 개입하였고 고구려와 송·북위간에는 긴장관계가 조성되었다.<sup>4)</sup> 풍홍의 고구려 망명과 살해는 고구려의 북위 및 송에 대한 다중적인 외교정책으로 일단락되었다.

한편 북위는 계속 세력을 확대하여 439년에 北凉을 멸망시켰고, 446년에는 서방의 吐谷渾을 공략하였다.<sup>5)</sup> 북위의 팽창은 인접해 있는 고구려에 커다란

2) 盧重國,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係 變化에 대한 一考察〉(《東方學志》 28, 1981) 참조.

3) 林起煥,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한국사》 4, 한길사, 1994), 139~140쪽.

4) 《宋書》 권 97, 列傳 57, 高句驪國.

5) 《魏書》 권 101, 列傳 89, 吐谷渾.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장수왕 15년(427) 평양천도 이후 남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던 고구려로서는 무엇보다도 서변의 안정이 시급한 문제였다. 이에 고구려는 북위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의 외교교섭을 통하여 북위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고구려는 북방에서 북위와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던 柔然과의 교섭을 통하여 북위를 견제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남조인 宋과도 연결하였다. 이는 당시 유연과 송도 또한 북위를 적대국가로 인식하였던 상황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고구려가 풍홍사건 이후 약 20여 년간이나 북위에 사절을 파견하지 않았던 사실에서 당시 고구려의 대북위관을 짐작할 수 있다.

고구려는 장수왕 50년 북위에 사절을 파견함으로써<sup>6)</sup> 한때 단절되었던 양국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당시 고구려가 북위와의 관계개선을 서둘렀던 배경 중에는 남쪽에서 백제—신라의 연합이 가시화되어 고구려를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데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대해 북위도 당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던 송·유연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고구려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이리하여 양국관계는 급속히 개선되었고 고구려는 매년 사신을 파견하다시피 하며 북위와의 우호관계 유지에 노력하였다. 당시의 양국관계는 조공과 책봉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sup>7)</sup> 양국관계를 시사해 주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북위는 그 주변국 가운데 고구려왕의 지위를 높게 책봉하였으며, 또한 외국사절에 대한 연회에서 입장순서와 외교사절에게 배정한 숙소에서 고구려 사신을 남조 사신에 이어 제2위로 대우하였다.<sup>8)</sup> 뿐만 아니라 북위에서 고구려에 파견한 사절의 횟수만 하더라도 북위의 대외 사신 파견국 가운데 남조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sup>9)</sup> 이는 북위가 고구려를 얼마나 중요한 상대자로 여기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0)</sup>

6) 《三國史記》권 18, 高句麗本紀 6, 장수왕 50년.

7) 盧泰敦, 앞의 글, 35~42쪽.

8) 《南齊書》권 58, 列傳 39, 東南夷 高麗國.

《資治通鑑》권 136, 齊紀 2, 武帝 永明 2년 10월.

9) 三崎良章, 〈北魏의對外政策と高句麗〉(《朝鮮學報》102, 1982), 129~131쪽.

10) 한 예로 489년 北魏의 宴會에서 고구려 사신을 南齊의 사신과 나란히 앉게 하였다. 이에 남제의 사신이 북위 조정에 이를 공식 항의했다는 사실에서 당시 북위가 고구려를 상당히 배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南齊書》권 58, 列傳

그러나 양국관계가 시종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장수왕 54년(466)에는 북위의 청혼을 고구려가 거절함으로써 두나라의 관계는 냉각되었으며,<sup>11)</sup> 이어 북위에 왔던 백제사절의 고구려영토 통과문제와<sup>12)</sup> 고구려—남제의 외교문제를 놓고서도 갈등이 빚어졌다.<sup>13)</sup> 한편 북방에서 세력을 확대하며 고구려와 마찰을 일으켰던 勿吉이 북위에 접근해 가자 고구려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고구려는 물길이 북위와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유연과 협세하여 地豆于를 분할 점령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렇듯 양국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조공·책봉관계를 유지하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지만 서로를 잠재적인 적대세력으로 여겨 경계와 견제를 계속하였던 것이다. 고구려는 북위와의 관계개선 이후에도 남조 및 유연과의 우호관계를 지속시켜 나갔다. 백제가 북위에 國書를 보내어 고구려의 이와 같은 다중외교를 비난하고 청병의 구실로 삼고자 했던 사실에서<sup>14)</sup> 당시 고구려외교의 복잡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구려는 중국 각국과의 다중적인 외교관계를 통하여 서변에서의 안정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동북아질서의 한 축으로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확립할 수 있었다. 당시 고구려는 북위 및 몽고고원 세력의 영향력을 배제하면서 그 직할영역의 외곽에 일부 거란족과 말갈족의 부족들을 예속시켰고, 室韋에 철을 공급해 주는 등 내몽고 동북부지역에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었다. 또한 부여를 지배하고 신라의 내정에 깊숙히 간여할 뿐만 아니라 백제를 압박하는 등 동북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sup>15)</sup> 고구려는 서변의 안정을 바탕으로 하여 남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니 그 결과 백제의 수도인 한성의 함락과 중부 내륙지방으로의 진출, 그리고 신라지역으로 소백산맥을 넘어 영일만지역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39, 東南夷 高麗國).

11) 《三國史記》권 18, 高句麗本紀 6, 장수왕 54년.

12) 《魏書》권 100, 列傳 88, 百濟國.

13) 480년 고구려가 남제에 파견한 사신을 북위가 海上에서 억류하고 남제와의 외교교섭에 대하여 고구려에 항의하였다(《三國史記》권 18, 高句麗本紀 6, 장수왕 68년).

14) 《三國史記》권 25, 百濟本紀 3, 개로왕 18년.

15) 盧泰敦, 앞의 글, 45쪽.

중국의 정세는 6세기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변화해 갔다. 북위에 내분이 일어났고 그 결과 북위는 東魏(534)와 西魏(535)로 분열되었다. 다시 동위에 이어 北齊(550)가, 서위에 이어 北周(557)가 각각 등장해 동서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한편 남조에서도 梁이 망하고 陳왕조가 들어섰다(557). 뿐만 아니라 몽고고원에서도 세력교체가 있었으니 고구려 陽原王 8년(552)에 신흥 突厥이 유연을 격파하고 북방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것이다.

고구려는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고구려 조정에서도 귀족간의 내분이 심화되는 등의 정정불안이 계속되었기 때문일 것이다.<sup>16)</sup> 즉 安原王 원년(531)에 일어난 安藏王의 피살도 이와 연관된 것이다. 또한 안원왕 14년 왕위계승권을 둘러싸고 귀족간의 분쟁이 일어나 麤群족이 細群족의 2,000여 명을 살해하였다는 《日本書紀》의 기록을<sup>17)</sup> 참조해 본다면 당시 고구려의 내분이 심각한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18)</sup> 더욱이 고구려는 남쪽에서 내분을 알아챈 나제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한강유역을 상실하는 등 수세에 몰려 있었다.<sup>19)</sup>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정세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던 고구려에 그 파장이 밀려왔다. 고구려 양원왕 8년 北齊의 文宣帝가 친히 요서지방에 행차하여 고구려를 위협해서 북위 말기에 고구려로 도망해 온 유민 5,000여 호를 刷還해 갔다.<sup>20)</sup> 이와 같은 위협에 직면한 고구려는 남조의 진과 외교교섭을 통하여 북제를 견제하였다.<sup>21)</sup> 북제의 군사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북조의 北齊·北周·陳의 세력균형이라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고구려와 북제 사이에는 평온이 유지될 수 있었다.

16) 林起煥, 〈6·7세기 高句麗 政治勢力의 동향〉(《韓國古代史研究》 5, 1992), 6~13쪽.

17) 《日本書紀》권 19, 欽明天皇 6년·7년.

18) 고구려 안원왕의 죽음도 이 때의 내분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李弘植, 〈日本書紀所在 高句麗關係記事考〉,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1971, 158쪽).

19) 盧泰敦, 〈高句麗의 漢水流域 喪失의 原因에 대하여〉(《韓國史研究》 13, 1976), 31~35쪽.

20) 《北齊書》권 4, 帝紀 4, 文宣帝 天保 3년 정월.

21) 徐榮洙, 〈三國時代 韓·中外交의 展開와 性格〉(《古代韓中關係史의 研究》, 三知院, 1987).

한편 돌궐이 흥안령산맥을 넘어 거란족과 말갈족에 세력을 뻗쳐왔고 나아가 고구려의 국경을 침범하게 되었다. 이에 고구려는 거란족과 말갈족에 대한 지배권을 한층 강화하며 돌궐의 진출을 적극 저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돌궐과의 충돌이 벌어져<sup>22)</sup> 이제까지 평화를 유지해 왔던 몽고고원 유목민국가와의 평화가 깨진 것이다. 한편 남쪽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고구려를 견제하고 압박해 왔다. 이리하여 고구려는 6세기 중반 이후 남북 양쪽에서 밀려오는 압박에 의해 5세기 이후 구축해 놓았던 東北亞의 한 축으로서의 중심적 역할과 그 세력권이 점차 위협받게 되었다. 6세기 후반에 중국이 隋제국으로 통일되면서 고구려는 새로운 선택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 2) 백제 · 신라와의 관계

고구려는 남진과정에서 고국원왕이 백제 근초고왕에게 敗死하였는데 이 사건은 이후 5세기대의 양국관계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백제와 원수지간이 된 고구려는 소수림왕 · 고국양왕대에 걸쳐 백제를 적극적으로 공략하였다. 그러나 백제의 반격으로 양국은 약 20여 년간 일진 일퇴의 공방전을 벌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구려는 백제견제책의 일환으로 신라를 끌어들이었다. 백제 禿山城主의 신라 망명문제를 놓고 백제 · 신라의 기존 우호관계에 금이 간 것을 틈타 고구려가 신라에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내물왕 22년(377)과 26년에 신라사신이 前秦에 파견되고 있는 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양국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sup>23)</sup> 신라사신이 전진에 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구려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sup>24)</sup> 당시의 양국관계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

22) 고구려와 돌궐의 관계에 대하여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李龍範, 〈高句麗의 遼西進出企圖와 突厥〉(《史學研究》4, 1959).

盧泰敦, 앞의 글(1976).

23) 《資治通鑑》권 104, 晉紀 26, 孝武帝 太元 2년.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내물이사금 26년.

24) 李丙燾, 《韓國史》古代篇(震檀學會, 1959), 401~402쪽.

시 신라의 외교정책이 고구려와의 연결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미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양국의 관계 속에서 고구려는 광개토왕 2년(392) 신라에 修好使를 파견하였다.<sup>25)</sup> 이에 신라는 고구려의 강성함을 인정하고 實聖을 인질로서 고구려에 파견하였다. 이렇게 하여 양국 사이에 인질외교가 시작되었다. 고구려로서는 신라와의 우호관계를 통하여 백제를 견제할 수 있었으므로 대백제공략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신라로서도 어렵게 즉위한 내물왕의 정치적 안정확보를 위하여는 고구려의 후광이 필요하였던 국내의 사정이 있었다.<sup>26)</sup> 양국 사이의 이러한 이해의 일치에 따라 성립된 우호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갔다. 그런 가운데서 백제와 왜·가야 연합군이 신라에 침범하자 신라왕은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하였고, 광개토왕은 즉위 10년(400) 낙동강유역까지 진출하여 신라를 구원해 주었던 것이다. 이때 고구려는 신라구원 및 수호를 명분으로 삼아 신라영토 안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켰던 것으로 보여진다. 〈中原高句麗碑〉에 보이는 ‘新羅土內幢主’는 그 실상을 기록한 것으로 믿어진다. 고구려는 이 주둔군을 기반으로 하여 신라의 내정에까지 간섭하는 등 고구려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갔다. 그 한 예로서 신라 눌지왕의 즉위에 고구려가 개입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27)</sup>

이 당시 양국관계는 신라가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고구려에 인질을 보내는 인질외교였던 반면에 고구려는 신라를 ‘屬民’으로서 ‘朝貢’을 바치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고구려는 급성장한 국력을 배경으로 하여 華夷論的 천하관에 의한 王者觀念이 형성되어 주변 세력들에게 차등적인 복속관계를 설정하고 있었다.<sup>28)</sup> 고구려는 신라에 대하여도 고구려의 우월 및 자존의

25) 《三國史記》권 18, 高句麗本紀 6, 고국양왕 9년.

26) 盧重國, 앞의 글, 59~60쪽.

27)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눌지마립간 즉위년.

28) 〈광개토왕릉비〉에는 고구려의 주변세력들에 대하여 朝貢·歸王·奴客 등의 차등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또한 고구려왕을 太王 또는 聖王(〈牟頭婁墓誌〉)이라 한 데 비하여 百殘主(백제왕) 또는 東夷寢錦(신라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武田幸男, 〈高句麗好太王碑文にみえる歸王について〉(《末松保和博士

식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천하관에 따라<sup>29)</sup> 조공관계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廣開土王陵碑〉에는 신라 내물왕이 직접 고구려에까지 와서 조공하였음을 말해주는 기록이 있다.<sup>30)</sup> 경주 호우총에서 광개토왕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이란 명문이 새겨진 유물이 출토된 것은 당시의 양국관계를 나타내 준다.<sup>31)</sup> 또한 〈중원고구려비〉에는 고구려가 신라를 ‘東夷’라 하고 신라왕을 ‘東夷寐錦’으로 지칭하며 의복을 賜與하는 등의 기록이 보이고 있어 고구려인의 신라에 대한 우월의식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무렵 백제에서는 枕流王의 短命(385)에 따른 정변이 일어나는 등 내부적으로 왕권의 동요가 있었다.<sup>32)</sup> 정변에 의하여 변칙적으로 즉위한 辰斯王은 왕권의 신장을 위해 토목공사를 벌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역시 정변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보여진다.<sup>33)</sup> 이처럼 백제 지배세력간의 갈등에 따른 정치불안은 고구려의 대백제공략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광개토왕은 즉위년부터 백제공략에 나섰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고구려군의 공세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이 참고된다.

고구려왕 談德(광개토왕)이 4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북변을 공격해 와 石峴 등 10여 성을 함락시켰다. (진사)왕은 담덕이 용병에 능하다는 말을 듣고 감히 나가 맞서 싸우지를 못하니 漢水(한강) 이북의 여러 성이 함락되었다(《三國史記》권 25, 百濟本紀 3, 진사왕 8년).

古稀紀念古代東アジア史論集》上, 吉川弘文館, 1978) 참조.

29) 당시 고구려인들이 가지고 있던 天下觀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梁起錫, 〈4~5C 高句麗王者의 天下觀에 對하여〉(《湖西史學》 11, 1983).

盧泰敦, 〈5세기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人의 天下觀〉(《韓國史論》 19, 서울大國史學科, 1988) 참조.

30) 盧重國, 앞의 글, 65쪽.

31)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金載元, 〈壺杆塚와 銀鈴塚〉(國立博物館, 1948).

鈴木治, 〈慶州壺杆塚とその紀年について〉(《天理大學學報》 29, 1959).

盧泰敦, 〈廣開土王壺杆銘文〉(《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2).

32) 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一潮閣, 1988), 132~136쪽.

33) 《日本書紀》권 10, 應神天皇 3년 임진.



이는 고국원왕의 전사 이후 양국이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던 종래의 상황과는 달라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고구려는 계속 백제를 공격하여 마침내 백제수도 한성에 쳐들어가 阿莘王의 항복을 받고 돌아오는 대진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 때 백제는 한때나마 고구려왕에 대한 ‘奴客’으로서 ‘歸王’의 형태로 고구려 세력권에 예속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sup>34)</sup> 백제는 점차 압박해 오는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하여 왜·가야와 연합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광개토왕릉비>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는 왜·가야로 하여금 고구려의 부용세력화한 신라를 공격케 하였다. 다급해진 신라는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광개토왕의 ‘庚子年 출병’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 고구려는 백제공략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광개토왕릉비>에 기록된 훈적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백제공략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고구려는 중국방면에서의 상황이 변하면서 북연을 사이에 두고 북위와 대립하게 되었고, 이후 북위 및 송과의 복잡한 외교관계 때문에 대백제관계에 소홀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백제는 이 상황을 틈타 失地회복을 위해 고구려를 수 차례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중국방면에서의 정치적 안정으로 인하여 西進에 한계를 느낀 고구려는 장수왕 15년(427) 평양천도를 통하여 남진정책을 본격화하였다.<sup>35)</sup> 이에 위기감을 느낀 백제와 신라는 433년 우호관계를 맺어 고구려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백제는 신라와의 교섭을 통하여 고구려를 견제할 수 있었고 신라는 백제와의 연합을 통하여 고구려의 간섭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었던 것이다. 백제측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양국의 우호관계가 성립됨으로써<sup>36)</sup> 백제는 고구려와 약 30여 년에 걸친 치열한 전쟁을 전개할

34) 武田幸男, 앞의 글, 79~88쪽.

35) 고구려의 평양천도와 연관된 문제에 대하여는 徐永大, <高句麗 平壤遷都의 動機> (《韓國文化》 2, 서울大 韓國文化研究所, 1981) 참조.

36) 433년에 百濟는 新羅에 和好를 제의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良馬 2匹과 흰 매를 신라에 예물로 보냈다. 이에 신라는 그 화답으로 良金과 明珠를 백제에 보냄으로써 양국간에 우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수 있었다.

한편으로 백제는 왜 및 송과의 외교관계를 지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물길 및 북위와의 연결도 도모하는 등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백제 蓋鹵王은 고구려와 북위간의 불편한 관계를 틈타 북위와의 연합을 시도했지만 당시 고구려의 강성함을 인정하고 있던 북위측의 거절로 무산되고 말았다.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는 나제동맹을 계기로 하여 약간씩 변화해 갔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광개토왕릉비>에 신라가 고구려의 屬民으로서 朝貢하는 관계로 표현되어 있던 양국관계가, 5세기 장수왕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원고구려비>에는 兄弟關係로 기록되어 있어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7)</sup> 이러한 변화 속에서 눌지왕 34년(450) 신라에 의한 고구려 장수의 살해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대한 고구려의 보복 침공이 있었다.<sup>38)</sup>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양국의 우호관계는 깨졌다. 고구려는 신라측의 사과에 만족하고 일단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였다. 그러나 백제와의 연합을 발판으로 한 신라측의 반고구려적 분위기는 점차 거세어 갔던 것으로 보여진다. 마침내 신라는 광개토왕대 이래 자국 영토내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군을 제거해 버린 것이다.<sup>39)</sup> 이후 양국관계는 극도로 냉각되어 고구려는 신라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신라 북방의 요충지인 悉直城(삼척)을 공격하였다. 당시 고구려가 신라의 중심부까지 공격하지 않았던 배경에 대하여 백제와의 심각한 대치관계 때문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sup>40)</sup> 신라는 고구려의 본격적인 침공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경지역에 성곽을 축조하고 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경인 경주에 대한 방비조치를 취하였다.<sup>41)</sup>

37) 鄭雲龍, <5~6世紀 新羅・高句麗關係의 推移>(《新羅의 對外關係史 研究》,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5, 1994), 45쪽

38)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눌지마립간 34년.

39) 《日本書紀》권 14, 雄略天皇 8년 2월.

40) 鄭雲龍, 앞의 글, 51~53쪽.

41) 閔德植, <新羅王京의 防備에 關한 考察>(《史學研究》 39, 1987), 56~57쪽.

5세기 후반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의 우호적인 관계가 구체화됨에 따라 양국을 번갈아가며 공격하는 등 남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5세기 말까지의 전투양상을 《三國史記》에서 추출해 보면 대백제전이 4회, 대신라전이 8회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라의 이탈을 경계한 고구려가 신라를 주요 공격대상으로 삼았음을 짐작케 한다. 이에 자극된 백제와 신라는 상호 군사적인 협력을 통하여 대처하였다. 장수왕 43년(455) 고구려가 백제를 침범하자 신라 눌지왕이 백제에 구원병을 파견하면서<sup>42)</sup> 시작된 양국의 군사동맹은 이후 자비왕 18년(475) 장수왕의 백제 공격시에 신라가 1만 명의 구원병을 파견해 주었고,<sup>43)</sup> 또한 장수왕 69년 고구려의 신라 침입시에도 백제가 가야와 연합군을 편성하여 파견하는 등의<sup>44)</sup>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 백제와 신라의 군사적인 연합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장수왕은 그 63년에 백제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69년에는 신라를 침범하여 彌秩夫(興海)지역까지 진출하는 등 백제·신라에 군사적 압박을 계속해 나갔다.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 큰 타격을 입은 백제와 신라는 군사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고구려의 남진정책은 충청북도 중북부의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이 당시 고구려군의 전선은 鎭川—槐山—鳥嶺선이었는데<sup>45)</sup> 백제와 신라측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교착상태를 보이던 고구려의 전선은 이후 6세기에 접어들면서 혼인동맹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백제·신라측의 협공과 신라의 강력한 부상에 따라 점차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孔錫龜〉

42)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눌지마립간 39년.

43) 《三國史記》권 26, 百濟本紀 4, 문주왕 즉위년.

44)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소지마립간 3년.

45) 金秉柱, 〈羅濟同盟에 관한 研究〉(《韓國史研究》46, 1984), 44쪽.

## 4. 후기의 정세변동

### 1) 한강유역의 상실

551년에 신라의 眞興王과 백제의 聖王은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한 북진군을 일으켰다. 백제 성왕이 이끄는 백제·가야의 연합군은 한성을 공파하여 한강 하류의 6군을 차지하였고,<sup>1)</sup> 이어 居柒夫 등이 이끄는 신라군이 죽령을 넘어 高峴까지 진출하여 한강 상류의 10군을 확보하였다.<sup>2)</sup> 이 6군과 10군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6군은 대략 임진강 이남에서 수원·여주 이북지역 정도로 추정되고, 10군은 고현이 철령에 비정되므로 대략 충주·제천에서 철원까지의 지역으로 추정된다.<sup>3)</sup>

백제와 신라 연합군의 기습적인 공격에 제대로 저항도 못해보고 한강유역을 빼앗긴 고구려는 이를 다시 탈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보다는, 단지 양국 연합군의 북진을 현 수준에서 저지하기 위한 미봉책을 세우기에 급급하였다. 그 하나가 신라와 화평관계를 맺은 것이었다.<sup>4)</sup>

이러한 수습책은 일단 주효하였다. 고구려로부터의 반격 위협이 사라지자, 진흥왕 14년(553)에 신라는 동맹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백제가 탈환한 한강 하류지역을 기습 공격하여 이를 차지하였다. 격분한 백제는 다시 전열을 정비하여 이듬해에 管山城(옥천)에서 신라와 격전을 벌였으나 성왕이 전사하는 치명적 패배를 당하였다.<sup>5)</sup> 이 전투로 나제동맹은 완전히 깨지고 오히려 이후 백제와 신라간의 격돌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한강유역을 차지한 신라는 나제동맹의 결렬로 인해 백제의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고구려와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고구려는 비록 한강유역을 잃기는

1) 《日本書紀》권 19, 欽明天皇 12년.

2)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진흥왕 12년 및 권 44, 列傳 4, 居柒夫.

3) 李道學, 〈新羅의 北進經略에 관한 新考察〉(《慶州史學》 6, 1987), 33~35쪽.

4) 盧泰敦, 〈高句麗 漢江流域 喪失의 原因에 대하여〉(《韓國史研究》 13, 1976), 54쪽.

5)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진흥왕 15년.

했지만, 남쪽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러면 고구려가 남진의 거점이며 한반도 중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강유역을 상실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이를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배경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먼저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왕권의 약화와 귀족세력간의 분열 등으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을 들 수 있다. 《日本書紀》에 인용된 〈百濟本紀〉에 의하면, 고구려 安臧王과 安原王은 정치적 변란에 의해 희생되었다.<sup>6)</sup> 안장왕이 살해된 동기는 잘 알 수 없으나, 안원왕은 왕위계승을 둘러싼 정쟁의 와중에서 희생되었다. 안원왕은 세 부인이 있었는데, 大夫人은 아들이 없고 中夫人과 小夫人의 소생이 있었다. 중부인측은 麤群이고 소부인측은 細群이라 하였다. 제위 15년(545)에 안원왕이 병이 들자, 후계를 노린 외척 추군과 세군 사이에 군사를 동원하여 3일간에 걸친 격렬한 무력 충돌이 벌어졌다. 그 와중에 안원왕은 죽었고, 분쟁은 추군측의 승리로 끝나 중부인의 소생인 陽原王이 8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다. 이 때 패배한 세군측의 희생자가 2천여 명이 넘었다는 것을 보면, 당시 왕위계승전에는 외척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중앙귀족이 참가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대규모 정쟁의 발발은 당시 귀족세력간의 분열과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였음을 보여준다.

왕위계승전을 통해서 드러난 귀족세력간의 갈등은 양원왕대에도 계속되었다. 양원왕 13년(557)에는 환도성의 干朱里가 반란을 꾀하였다가 토벌되었다.<sup>7)</sup> 아울러 중앙정계에서의 정변의 여파는 지방에까지 심각한 파급을 일으켰다. 《三國史記》居柒夫傳에 의하면 양원왕 7년(신라 진흥왕 12년)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이 한강유역을 공격할 때, 고구려의 惠亮法師가 문도를 이끌고 신라군 장수 거칠부를 맞이하여 “지금 우리 나라의 정국이 혼란하여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신라로 망명하였다고 한다.<sup>8)</sup> 이러한 해량법사의 동향으로 볼 때, 한강유역의 상실에는 중앙에서의 정국의 혼란 이외에도 중앙정권에 불만을 품고 있거나 위기의식을 느낀 지방세력의 이탈도

6) 《日本書紀》권 17, 繼體天皇 25년 및 권 19, 欽明天皇 6년·7년.

7) 《三國史記》권 19, 高句麗本紀 7, 양원왕 13년 10월.

8) 《三國史記》권 44, 列傳 4, 居柒夫.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귀족세력간의 분열·대립의 배경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 보겠지만, 이러한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는 나제연합군의 공세에 적절히 대처할 능력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백제·신라 연합군의 한강유역 공격은 고구려의 국내정세를 잘 파악하여 적절한 기회를 포착한 군사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상실한 대외적 요인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연합군을 구성한 백제와 신라의 동맹관계의 형성이고, 둘째는 서북부지역에서 증대되기 시작한 중국세력과 돌궐의 위협이었다.

고구려가 長壽王 15년(427)에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백제와 신라가 433년에 화친관계를 맺으면서 나제동맹이 성립되었다.<sup>9)</sup> 고구려의 남진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낀 것은 백제였다. 백제는 이미 광개토왕의 정벌시에 상당한 영토를 잃고 한성이 포위되어 阿莘王이 항복하는 등 굴욕을 당한 바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고구려의 평양 천도가 이루어진 2년 뒤인 毗有王 3년(429)에 백제는 송에 사신을 보내어 通好하고 빈번하게 교류하였으며, 蓋鹵王 18년(472)에는 북위에도 사신을 보내어 고구려를 정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10)</sup> 그러나 북위가 난색을 표함으로서 북위와의 교섭이 여의치 않자, 백제는 신라와의 교섭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신라 역시 고구려의 남진을 적극 경계하고 있었다. 奈勿王 44년(399) 왜의 침략시에 고구려 광개토왕의 도움을 받은 바 있는 신라는 實聖과 卜好를 인질로 고구려에 보냈고,<sup>11)</sup> 실성왕과 눌지왕의 즉위 과정에서도 고구려의 간섭을 받는 등<sup>12)</sup>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그 뒤 신라의 고구려에 대한 예속은 점점 심화되어 고구려군이 신라에 주둔하기까지 하였다.<sup>13)</sup> 고구

9) 《三國史記》 권 25, 百濟本紀 3, 비유왕 7년 7월·8년 2월·9월·10월 및 권 3, 新羅本紀 3, 눌지왕 17년 7월·18년 2월·9월·10월.

10) 《三國史記》 권 25, 百濟本紀 3, 개로왕 18년.

《魏書》 권 100, 列傳 88, 百濟.

11)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내물이사금 37년 정월·실성이사금 11년.

12) 李基東, 〈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歷史學報》 52·53, 1972), 74쪽.

려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있었다.

따라서 백제와 신라의 동맹은 군사적 우위에 바탕을 둔 고구려의 세력확대에 대처하는 양국의 생존전략이었다. 이리하여 이후의 삼국관계는 고구려와 나제연합의 대결구도로 전개되었다.

나제동맹 후에도 고구려는 힘의 우위를 과시하며 백제와 신라에 대해 공세를 취하였다. 장수왕 63년(475)에 고구려는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한강유역을 차지하였다. 이 때 신라는 구원군을 청하러 온 백제의 文周에게 1만의 구원군을 주어 보냈다.<sup>14)</sup> 뒤이어 동왕 69년에 고구려는 신라를 공격하여 7성을 빼앗고 彌秩夫(홍해)까지 진출하여 신라의 왕경을 지척에서 위협하였다. 미질부전투에서는 거꾸로 백제의 군대가 신라를 구원하였다.<sup>15)</sup> 이러한 백제와 신라의 공동방어의 결과, 고구려의 남진은 죽령·조령 일대에서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에서 저지되었다. 이후에도 고구려는 지속적으로 남진을 시도하였으나, 백제나 신라가 각각 혹은 공동으로 방어에 전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sup>16)</sup>

나제동맹이 갖는 의미는 세력이 약한 양국이 고구려의 남하를 공동으로 저지하면서, 각각 내부적으로 지배체제를 정비하여 정치·군사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유를 얻은 데에 있었다.<sup>17)</sup> 그리고는 이를 바탕으로 소극적인 방어동맹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연합군을 구성하여 고구려의 한강유역을 탈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한강유역의 공취는 나제동맹 최대의 또 최종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고구려가 외교적으로 신라와 백제의 동맹관계를 깨뜨리

13) 〈中原高句麗碑〉에 ‘新羅土內幢主’라 보이고 있으며, 《日本書紀》권 14, 雄略天皇 8년 2월조 기사에도 고구려군이 신라 영내에 주둔하고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

14)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자비마립간 17년 7월 및 권 26, 百濟本紀 4, 문주왕 즉위년.

15)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소지마립간 3년 3월.

16) 고구려의 공격에 대한 백제·신라의 공동방어 전투는 다음과 같다.  
장수왕 72년(484) 신라 母山城 전투, 문자왕 3년(494) 신라 薩水·犬牙城 전투,  
문자왕 4년(495) 백제 雉壤城 전투, 양원왕 4년(548) 백제 獨山城 전투이다.

17) 나제동맹에 대해서는 金秉柱, 〈羅濟同盟에 관한 研究〉(《韓國史研究》 46, 1984) 참조.

지 못한 것이 남진의 한계였으며, 결국에는 한강유역을 상실케 하는 외적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한강유역 상실의 또 다른 대외적 배경은 서북면에서의 대외적 위기의 고조이다. 5세기 이래 고구려는 북중국의 北魏와 남조의 宋, 유목민 국가인 柔然과 더불어 당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움직이는 중심세력이었다.<sup>18)</sup> 당시 적대관계의 중심축인 북위·송·유연의 3국간에는 역관계의 連動性을 바탕으로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고구려는 이들 3국과 등거리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였다. 북중국의 국가와는 5세기초에 後燕과의 전쟁을 치룬 이후 嬰陽王 9년(598)에 隋와의 전쟁을 치루기까지 한 차례의 전쟁도 없었고, 북방 유목국가와도 6세기 후반에 돌궐과 충돌하기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sup>19)</sup> 이 시기 고구려가 남진에 주력할 수 있었던 것은 당대 국제질서 속에서 고구려의 서변이 안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6세기에 들어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서서히 변동하기 시작하였다. 534년에 북위가 동위와 서위로 분열되어 이후 각각 北齊와 北周를 세웠다(550, 557). 고구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북위의 붕괴로 인해, 그 전과는 다른 대외적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북방에서도 고구려 양원왕 8년(552)에 신흥 突厥이 유연을 격파하고 몽고고원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하는 세력교체가 일어났다. 돌궐은 본래 흉노족의 일부로 알타이산 남쪽에서 유목생활을 하면서 유연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6세기 중엽 이후 점차 강성해지면서 유연을 대파하고 돌궐국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이후로 돌궐국은 끊임없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동쪽으로 밀려왔다. 이에 따라 돌궐에 의해 격파된 유연의 남은 무리들이 이동하여 요하 상류지역의 거란족을 압박하면서 이 일대에 연쇄적인 파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북제의 군사행동이 뒤따르게 되었다.

고구려 양원왕 8년에 북제는 庫莫奚에 대한 정벌 끝에 文宣帝가 營州에

18) 5~6세기 고구려의 대외관계에 관해서는 盧泰敦, <5~6世紀 東亞細亞의 國際政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東方學志》44, 1984) 참조.

19) 盧泰敦, 위의 글, 1쪽.



머물며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북위 말기의 혼란기에 고구려로 이주한 유민 5천 호를 쇄환해 갔다. 이듬해에도 거란족의 일부가 북제의 북경을 침략하자 북제의 문선제는 거란족에 대한 대규모 친정을 감행하면서 요서의 昌黎城까지 직접 순행하였다.<sup>20)</sup> 이같은 북제 문선제의 행동은 내분에 이어 나제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있던 고구려의 내외의 약점을 포착한 무력시위로 보인다.<sup>21)</sup> 요해지역 일대에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고구려로서는 이 일대에서 전개된 이러한 북제의 무력시위에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 정세의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북제의 뒤를 이어 돌궐이 6세기 중엽부터 말엽에 걸쳐 요해 일대에 세력을 뻗쳐 왔다. 북제의 공격으로 타격을 입은 거란은 뒤이어 돌궐세력이 미쳐오자 그 세력이 크게 위축되어 일부는 고구려로 귀부해 왔다. 이를 계기로 고구려는 주춤했던 요해 일대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평원왕 22년(580)을 전후한 무렵에는 돌궐의 利稽察병단을 격파하는 등 돌궐과 충돌하게 되었다. 돌궐 역시 이시바라카한대에는 거란에 吐屯이란 지방관을 설치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세력확대를 늦추지 않고 고구려와 치열하게 상쟁하였다.<sup>22)</sup>

이와 같이 한강유역을 빼앗긴 이듬해부터 시작된 서북지역에서의 정세변동에 따라 고구려는 미처 남변으로 눈을 돌릴 여유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대륙에서의 정세변동이 한강유역 상실의 직접적인 배경은 아닐지라도, 이후 고구려가 한반도 내에서 운신하는 데에 커다란 제약을 준 것은 틀림없다. 고구려가 일단 신라와 화평을 맺고 한강유역을 포기한 데에는 이러한 서변의 위협이 주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한강유역의 상실과 요해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의 고조라는 남북 양쪽에서 조성된 대외적 위기를 맞아, 고구려 지배층은 우선 내부분쟁을 수습하며 귀족연립체제를 성립시켰다.<sup>23)</sup> 그리고 외교정책과 군사활동을 적절히 구사하며 대외적 위기를 수습하였다. 먼저 북제에 대한 견제를 위해 남조 陳과 적

20) 《北齊書》권 4, 帝紀 4, 文宣帝 天保 3·4년.

21) 盧泰敦, 앞의 글(1984), 49쪽.

22) 돌궐과 고구려의 관계에 대해서는 盧泰敦, 앞의 글(1976) 및 李龍範, 〈高句麗의 遼西進出 企圖와 突厥〉(《史學研究》4, 1959) 참조.

23) 盧泰敦, 앞의 글(1984), 50쪽.

극적인 연결을 꾀하였다. 고구려는 양원왕 8년 이후 북제가 망할 때까지 25년 동안 4차례 사신을 보낸 데에 비하여, 남조 진에는 5차례나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북위와의 외교관계에 치중하였던 경향과 비교하면 대외정책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sup>24)</sup> 한편 돌궐의 동진 기세도 저지되어 종전의 상태를 큰 변동없이 유지하였다. 한반도 안에서도 나제동맹의 결렬 이후 백제와 신라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고구려의 남부국경 역시 상대적으로 안정될 수 있었다.

이렇게 대내적 정쟁과 대외적 위기를 수습한 고구려는 다시 세력권의 재건을 꾀하였다. 즉 거란·말갈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해 가며 요해지역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으며, 한편으로 한강유역을 탈환하기 위하여 신라에 대해 공세를 취하였다.<sup>25)</sup> 이러한 움직임은 《삼국사기》온달전에 잘 나타나 있다. 비록 설화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온달은 평원왕대에 요동으로 뻗쳐온 북주군을 격파하는 데 공을 세웠으며, 영양왕대에는 한강유역을 되찾기 위해 출전하였다가 전사하였다.<sup>26)</sup> 이러한 온달의 행적은 당시 고구려 대외정책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 보장왕 3년(644)에 신라의 金春秋가 고구려로 강화를 맺으러 갔을 때에 “麻木峴(조령)과 죽령은 본래 우리의 땅이니 돌려주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보장왕의 말에서도,<sup>27)</sup> 고구려가 한강유역의 회복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통일세력인 수·당의 등장과 고구려 침공이라는 국제정세의 변동은 고구려의 이러한 의도를 끝내 좌절시켰다.

## 2) 왕권의 쇠퇴와 귀족연립정권의 성립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6세기 중엽부터 정쟁이 잇따라 일어남으로써 왕권이 약화되고 그 대신 귀족들이 정치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귀족연립

24) 盧泰敦, 위의 글, 54쪽.

25) 《三國史記》권 20, 高句麗本紀 8, 영양왕 14년·19년.

26) 《三國史記》권 45, 列傳 5, 溫達.

27) 《三國史記》권 41, 列傳 1, 金庾信 上.

정권이 성립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중기 왕권의 기반 및 정치체제의 해체와 직결되며, 아울러 6세기 이후 고구려의 사회변동과도 관련되는 문제이지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귀족세력의 동향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세기 이래 那部체제의 해체와 중앙집권체제의 정비과정을 통하여 왕권은 크게 신장되었다. 나부체제가 해체되면서 諸加세력은 중앙귀족관료로 전화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部단위의 결속력이 약화되어 가면서, 귀족세력들은 각 가문별 귀족집단으로 분해되어 갔다. 〈牟頭婁墓誌〉와 〈高慈墓誌〉에 보이는 두드러진 가계의식은 이러한 변화상을 잘 보여 준다.<sup>28)</sup>

왕권은 관등·관직제의 정비를 통하여 왕도로 결집한 중앙귀족을 왕권 아래의 관료체계내로 편제해 갔다.<sup>29)</sup> 小獸林王대의 울령반포와 태학의 설립은 관료체계 운영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었다. 또 〈廣開土王陵碑〉의 ‘王幢’·‘官軍’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군사력도 왕권 아래로 흡수되었으며, 宗廟·國社의 설립과<sup>30)</sup> 守墓制의 정비<sup>31)</sup> 통해 왕실 중심의 제의체계를 확립하였다. 아울러 이념적으로도 왕실의 신성화를 추구하여, 왕실의 시조인 주몽을 “天帝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河伯의 딸”<sup>32)</sup>이라거나, “河伯의 손자요, 日月의 아들”<sup>33)</sup>이라고 신격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왕의 초월적 권위가 확보되어, 전제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sup>34)</sup>

28) 牟頭婁家와 高慈家の 家系를 보면, 두 가문이 모두 선조를 朱蒙과 연결시키고 있는 한편, 冉牟와 高密 등 고국원왕대 모용씨와의 투쟁에서 활동한 인물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中始祖의 존재는 귀족세력의 가문 단위로의 분해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모두루가와 고자가에 대해서는 林起煥, 〈6·7세기 高句麗 政治勢力의 동향〉(《韓國古代史研究》5, 1992), 21~23쪽 및 徐永大, 〈高句麗 貴族家門의 族祖傳承〉(《韓國古代史研究》8, 1995), 159~160쪽 참조.

29) 4세기 관등·관직제의 정비에 대해서는 이 책 4장 1절 참조.

30) 《三國史記》권 18, 高句麗本紀 6, 고국양왕 9년 3월.

31) 수묘제의 정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金賢淑, 〈廣開土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守墓人의 社會的 性格〉(《韓國史研究》65, 1989).

趙法鍾, 〈廣開土王碑文에 나타난 守墓制研究〉(《韓國古代史研究》8, 1995).

32) 〈廣開土王陵碑〉(《譯註 韓國古代金石文》1,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2), 7쪽.

33) 〈牟頭婁墓誌〉(위의 책), 93쪽.

34) 4세기 왕권강화에 대해서는 徐永大, 〈高句麗 平壤遷都의 動機〉(《韓國文化》2,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장수왕대의 평양천도는 전제적 왕권의 성장과 정치세력 재편성의 일대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세기부터 고구려왕권은 평양지역의 경영을 통하여 이 지역을 왕권의 직접적 기반으로 삼으려는 데 힘을 기울여 왔다.<sup>35)</sup> 따라서 평양천도는 왕권의 전제화에 하나의 전기가 되었지만, 반대로 국내지역에 세력기반을 둔 귀족들에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이에 평양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장수왕과 이에 반대하는 귀족들과의 갈등이 적지 않았으며, 결국 장수왕 60년(472) 경을 전후하여 귀족세력에 대한 장수왕의 대대적인 숙청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백제의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외교 문서에서 “지금 璉(장수왕)의 죄로 나라가 魚肉이 되었고, 대신들과 호족이 죽고 죽이는 것이 끝이 없어 죄악이 가득 쌓였다”고 한 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sup>36)</sup> 또 이 당시 고구려 귀족세력의 일부가 북위로 망명한 사실에서도<sup>37)</sup> 장수왕의 왕권강화책에 대한 귀족세력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천도를 계기로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던 장수왕은 귀족세력에 대한 숙청과 더불어 평양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을 대거 기용하여 왕권의 지지기반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새로 등장한 신진귀족으로서는 평양 일대의 호족세력을 우선 염두에 둘 수 있다. 예컨대 장수왕대의 인물로 추정되는 玄鶴琴을 제작하였던 第二相 王山岳이나,<sup>38)</sup> 양원왕·평원왕대의 大丞相 王高德<sup>39)</sup> 등은 그 성씨로 미루어 보아 낙랑군 이래의 호족세력인 王氏系 인물로 추정된다.<sup>40)</sup> 또한 북중국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고구려로 망명해온 중

1981), 102~114쪽 참조.

35) 林起煥, <4세기 고구려의 樂浪·帶方地域 경영> (《歷史學報》 147, 1995), 42쪽.

36) 《魏書》 권 100, 列傳 88, 百濟.

37) 《三國史記》 권 18, 高句麗本紀 6, 장수왕 59년 9월.

《魏書》 권 77, 列傳 65, 高崇 및 권 83 下, 列傳 71, 高肇.

高肇·高潛·高靄 등은 위 사료에는 渤海修人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을 고구려인으로 보기도 한다(徐永大, 앞의 글, 1981, 152쪽).

38) 《三國史記》 권 32, 雜志 1, 樂.

39) 《海東高僧傳》 권 1, 義淵.

40) 徐永大, 앞의 글(1981), 98~99쪽.

《新撰姓氏錄》·《續日本紀》에서 고구려계 인물을 찾아 보면 高氏·伊利氏·王氏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高氏는 고구려 왕족의 성이며, 伊利氏는 후기의 집

국제 망명인들의 동향도 주목된다.<sup>41)</sup> 이미 이들은 대체로 고국원왕대 이후 고구려왕권의 지원 아래 낙랑·대방지역에 세력기반을 마련하여 이 지역 경영과 대중외교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었다.<sup>42)</sup> 평양일대를 기반으로 한 이들 세력은 광개토왕·장수왕대에 전개된 남진 정복활동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을 제공하였고,<sup>43)</sup> 평양천도 이후에는 왕권의 뒷받침을 받으며 중앙정계로의 진출을 적극화하였을 것이다.<sup>44)</sup> 왕고덕·왕산악 등이 ‘大丞相’·‘第二相’ 등의 고위직을 역임한 사례를 보면, 후기의 정계를 주도할 정도로 정치적 진출이 활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평양천도와 신진귀족의 등장은 귀족관료 전체의 존재방식에도 일정한 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지배귀족층의 확대는 국가 집권력의 증대과정에서 확대·세분화되어 온 관료기구와 관등·관직제를 운영하는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다. 왕권의 후원 아래 등장한 신진귀족들이 왕권 중심의 관료체제를 뒷받침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본래의 세력기반으로부터 유리된 국내계 귀족들도 천도 후 새로운 자기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료체계내에 적극적으로 편입되어 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장수왕은 이러한 관료체제 운영을 바탕으로 전제적 권력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왕권의 위상은 〈모두루묘지〉에 왕과 귀족의 관계를 聖王·太王과 奴客의 관계로 표현한 데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장수왕대의 정치세력의 재편과정은 귀족관료 내부에 갈등구조를 잉태케 하는 측면도 있었다. 일부 국내계 귀족세력의 소외와 신진귀족의 정

---

권가문인 淵氏이다. 따라서 王氏 역시 이들 성씨와 버금갈 만큼 유력한 세력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41)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晉 平州刺史 東夷校尉 崔慙(319), 前燕 司馬 冬壽·郭充(336), 前燕 東夷校尉 封裕·護軍 宋晃·居就令 游泓(338), 宇文 逸豆歸(345), 前燕 太傅 慕容評(370).

42) 안악 3호분의 冬壽와 덕흥리고분의 幽州刺史 鎮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대해서는 林起煥, 앞의 글(1995) 참조.

43) 광개토왕은 영락 6년의 백제 공격시에 水軍을 동원하였는데, 이 水軍은 낙랑·대방지역의 해상세력을 동원한 것임에 틀림없다.

44) 《宋書》 고구려전에 보이는 장수왕대의 대중 외교사절인 長史 馬婁·董騰이나 장군 孫漱 등은 漢化된 성씨로 미루어 보아 중국계 망명인이나 낙랑계 호족세력으로 짐작된다.

치적 성장은 양자의 대립구도를 조성할 가능성도 있었고,<sup>45)</sup> 다양한 기반을 갖는 귀족세력의 혼재, 귀족가문의 분화 등은 권력을 둘러싼 정치세력간의 경쟁을 초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율령체제의 재정비나 이념적 통합이 장수왕대에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장수왕의 왕권강화책은 근본적인 집권체제의 정비를 통한 왕권 기반의 강화 방향보다는 신진 귀족의 등용과 이를 통한 구귀족세력의 견제라는 측면에 보다 주력한 듯하다. 따라서 왕권이 귀족세력을 적절히 통제·조절할 능력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 지위를 잃지 않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장왕·안원왕대에 걸친 거듭된 왕의 시해와 왕위계승전을 겪는 과정에서 귀족세력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왕권은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다만 이 때 귀족들의 권력투쟁이 왕위계승을 통해 전개되는 것은 이제까지 왕권 중심의 권력행사가 이루어져 왔던 결과이다.

전제적 권력을 행사하던 왕권이 6세기에 들어 약화되는 또 다른 배경으로는 대외정복활동의 침체를 들 수 있다. 사실 광개토왕·장수왕대에 전제적 왕권으로 급성장한 것은 기본적으로 소수림왕 이래 정비된 집권체제의 운영에 기반을 두는 것이지만, 두 왕대에 활발하게 전개된 대외정복활동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광개토왕릉비>에서 보듯이 광개토왕의 정복활동은 고구려 전시기를 통하여 최대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당대 고구려인이 그 시호에 ‘廣開土境’을 붙여 칭송할 정도였다. 장수왕 역시 요동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남진책을 추진하여 백제를 공파하고 한강유역을 차지함은 물론 남쪽 국경을 아산만에서 영덕을 잇는 선까지 확대하였다.

이러한 대외정복활동에서의 성공은 왕권의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마치 전시체제와도 같이 계속되는 外征은 고구려사회내에 긴장감을 높여 왕을 중심으로 지배층을 결속시키게 하였을 것이며, 군사력도 왕권 아래로 집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점에서 왕이 직접 전쟁에 나서는 親征은 주목된다. <광개토왕릉비>를 보면 총 7회의 외정에서 광개토왕이 직접 군사를 거느

45) 6세기 이후의 귀족세력의 분열과 대립 과정을 국내계 귀족세력과 평양계 귀족세력 사이의 갈등 구조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林起煥, 앞의 글, 1991).

리고 전쟁을 주도한 경우가 5회나 된다. 나머지 2회의 경우에도 영락 8년(398)전은 소규모 부대를 파견한 것이니 차치하고, 영락 10년의 신라구원전에는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해에 평양에 巡狩하여 원정군을 지원하고 있었다.<sup>46)</sup> 또 장수왕도 63년(475)의 백제 한성 공격시에 직접 3만군을 지휘하였던 것이다.<sup>47)</sup>

이러한 전쟁의 성공을 통하여 왕의 권위는 더욱 높아졌으며, 관념적으로도 고구려왕은 위엄을 사방에 떨치고 나라를 부강케 하는 주인공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sup>48)</sup> 또 전쟁의 전리품들을 왕권강화의 기반으로 삼거나,<sup>49)</sup> 성과물의 분배를 통하여 귀족세력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런데 文咨王대까지도 백제나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었으나, 백제가 다시 국력을 회복하고 또 나제군사동맹 등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안장왕대에 들어서는 그나마 대외전쟁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문자왕대에는 백제와의 전쟁이 7회, 신라와의 전쟁이 3회인 데 비하여, 안장왕대에 들어서는 백제와 2회의 전쟁 기사만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대외 정복활동이 침체된 원인은 잘 알 수 없으나, 그 결과 왕의 권위와 위상에 상당한 손상을 주어 왕권의 약화를 초래하였을 것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또 장수왕의 신진귀족 등용책으로 지배층의 저변이 확대된 상황에서 외정에서의 성과가 지지부진하자, 귀족들의 관심이 내부의 권력 분배문제로 쏠려 지배층 자체의 분열과 동요를 불러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

이상 6세기에 들어 전제적 왕권이 쇠퇴하고 귀족간의 갈등이 거듭된 배경과 원인에 대하여 한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지만,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46) 〈廣開土王陵碑〉(앞의 책), 9~14쪽.

47) 《三國史記》권 18, 高句麗本紀 6, 장수왕 63년 9월.

48) 〈廣開土王陵碑〉에는 “恩澤이 하늘에 미치고 威武는 四海에 떨쳤으며, (나쁜 무리들) 쓸어 없애시니 백성이 각기 생업에 힘쓰고 편안히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유족해졌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라고 왕의 훈적을 칭송하고 있다.

49) 〈廣開土王陵碑〉에 보이는 마와 같이 광개토왕이 정복한 新來韓穢를 그의 守墓人烟戶로 삼은 것은 그 한 예이다.

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전개되는 귀족연립 정권의 정치운영체제에 대해서만 좀 더 살펴보자.

안장왕~양원왕대에 거듭된 정쟁을 겪고 이 과정에서 한강유역의 상실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고구려 귀족들은 계속해서 신라의 북진·突厥의 위협·隋제국의 출현 등으로 대외적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혹 지배층 전체의 파탄을 불러올 지도 모를 격렬한 내부의 정쟁을 종식시키고 정국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귀족연립체제를 형성하였다.

귀족연립정권의 정치운영체제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변화의 하나는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관인 大對盧의 선임과 집권적 관직으로서의 莫離支의 등장이다.《舊唐書》고려전에 의하면, 대대로의 임기는 3년인데 유력한 자가 있으면 임기에 구애받지 않으며, 교체하는 날에 순순히 내어놓지 않으면 서로 군사를 동원하여 상쟁을 벌여 이긴 자가 취임하였는데, 이 때 왕은 궁문을 닫아 걸고 이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였다고 한다.<sup>50)</sup> 당시 왕은 대대로의 선임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명목상의 존재였고, 귀족들간의 실력대결에서 승리한 자가 대대로에 올라 정치운영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대대로의 선임이 반드시 무력대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보통은 귀족간의 세력조정을 통해 평화적으로 교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귀족연립정권의 정치운영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대로보다는 권력을 분점하면서 대대로의 취임에 도전하는 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후보로는 관의 서열로 볼 때 제2위의 太대兄이 유력하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관등은 각 귀족들의 세력기반의 비중에 따라 획득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고위 관등에 오른 자는 그만큼 큰 세력기반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sup>51)</sup> 이 관등체계상의 태대형을 후기 사료에 집권적 관직으로 등장하는 막리지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sup>52)</sup> 사료상 막리지는 국정을 전제하는 정치적

50) 《舊唐書》권 199 下, 列傳 149, 高麗.

51) 淵蓋蘇文에서 엿보이는 父職의 세습은 이 시기에 官의 획득이 각 가문의 세력 기반에 의한 것임을 방증한다.

52) 莫離支는 연개소문 당시의 강렬한 집권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 실체와 정치적 위상에 관하여 견해가 다양하다. 막리지를 최고 관등인 大對盧와 같은 존재로 보는 견해(末松保和, 〈新羅建國考〉, 《新羅史の諸問題》, 158~161쪽·李弘植, 〈淵



으로 강력한 실권을 장악한 존재로 나타난다.<sup>53)</sup> 이러한 막리지의 정치적 위상을 뒷받침하는 기반의 하나는 군사권의 장악이었다. 막리지가 당의 兵部尙書兼中書令에 비교된다는 기록이나,<sup>54)</sup> 연개소문의 조부가 막리지로서 ‘良治良弓’하여 군권을 쥐고 나라의 권세를 장악하였다는 기록에서<sup>55)</sup> 막리지의 주요 직능 중에 군사권의 장악이 포함되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대로의 취임시에 무력 충돌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군사권을 장악한 막리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였을 것은 당연하다. 태대형 즉 막리지가 고구려 후기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데에는, 각 귀족집단의 개별적인 무력 배경이 요구되는 귀족연립정권 아래에서 그것이 갖는 군사권에 힘입은 바가 컸다.

그런데 막리지의 정원은 다수였다.<sup>56)</sup> 따라서 당시 임기 3년의 대대로는 다수의 막리지 중에서 교대로 선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은 지속적인 권력의 독점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치열한 정쟁을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었다. 물론 세력의 우세 여하에 따라 계속 역임할 수도 있고, 또 세력관계 조정에 실패할 경우에는 군사를 동원한 정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기적인 대대로의 선임 과정에서 각 귀족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조정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극한적인 정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평원왕대 이후 연개소문의 정변이 있기까지 80여 년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국이 유지되었던 배경은, 이와

蓋蘇文에 대한 若干의 存疑),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1971, 301~304쪽 및 請田正幸, 〈高句麗莫離支考〉, 《朝鮮歷史論集》上, 1979, 120~121쪽), 제2위인 太대兄으로 보는 견해(武田幸男, 〈高句麗官位制の史的展開〉, 《朝鮮學報》86, 1978, 24~32쪽 및 林起煥, 앞의 글, 1992, 29~32쪽), 최고의 집권적 관직으로 보는 견해(이승혁, 〈고구려의 막리지에 대하여〉, 《역사과학》1985-1, 19~21쪽)가 있다.

53) 《三國史記》권 49, 列傳 9, 蓋蘇文.

〈泉男生墓誌〉(《譯註 韓國古代金石文》1), 493쪽.

〈高慈墓誌〉(위의 책), 510쪽.

54) 《舊唐書》권 199 下, 列傳 149, 高麗.

55) 〈泉男生墓誌〉(위의 책), 494쪽.

〈泉男產墓誌〉(위의 책), 529쪽.

56) 林起煥, 앞의 글(1991), 32~33쪽.

같은 각 귀족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유력 가문의 대표자들이 다수의 막리지 직을 차지하고, 대대로의 주기적인 선출과정에서 정치적 합의와 세력관계의 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귀족연립적 정치운영체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대대로와 막리지는 정국운영의 중심체로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귀족회의체를 구성하며, 대대로는 이 귀족회의체 의장의 기능을 수행하였다.<sup>57)</sup> 따라서 후기 귀족연립정권의 권력구조는 대대로—막리지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안정된 귀족연립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왕권의 위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濟世安民을 자임하였다”는<sup>58)</sup> 영양왕의 활동이 눈길을 끈다. 그는 재위 9년(598) 말갈군을 거느리고 요서를 공격하여,<sup>59)</sup> 긴장되어 가는 對隋관계에 불을 지르는 역할을 감행하였다. 특히 대외군사활동에 있어서 親征이란 형태가 왕권의 강화와 밀접히 관련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외관계를 일정하게 주도할 수 있는 왕권의 면모가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간취할 수 있다. 또 《新集》이란 역사서의 편찬도<sup>60)</sup> 어느 정도 안정된 왕권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물론 隋煬帝의 조서에서 영양왕대의 고구려의 국내 사정을 “強臣과 豪族이 국권을 잡고 당파를 짓는 것이 풍속이 되었다”라고 지적하듯이,<sup>61)</sup> 아직 정국운영의 주도권은 귀족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對隋전쟁에서의 승리는 영양왕으로 하여금 왕권강화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수의 침공은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통합력을 높이고, 이에 따라 왕의 권위도 강화되었을 것이다. 또 전쟁과정에서 있었을 귀족들의 희생은 귀족세력의 재편 가능성도 열어놓았을 것이다.<sup>62)</sup>

57) 고구려의 대대로와 막리지로 구성된 귀족회의체와 관련하여 신라의 上大等を 의장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귀족회의체의 모습이 참고된다. “關川公・林宗公・述宗公・虎林公・廉長公・庾信公이 있어 南山의 弓知巖에서 國事를 의논하였다”(《三國遺事》권 1, 紀異 2, 진덕왕).

58) 《三國史記》권 20, 高句麗本紀 8, 영양왕 즉위년.

59) 《三國史記》권 20, 高句麗本紀 8, 영양왕 9년.

60) 《三國史記》권 20, 高句麗本紀 8, 영양왕 11년.

61) 《三國史記》권 20, 高句麗本紀 8, 영양왕 23년 정월.

62) 金基興, 〈고구려 淵蓋蘇文政權의 한계성〉(《西巖趙恒來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

이러한 점은 수와의 전쟁중에 평양으로 침공해 온 수나라 水軍을 격파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영양왕의 동생 建武가 榮留王으로 즉위한 데에서 짐작할 수 있다.<sup>63)</sup>

영양왕대에 수와의 전쟁을 통하여 왕권의 위상이 어느 정도 강화되었는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제 왕권이 보다 안정된 기반을 다시 확립하려고 시도하면서, 왕권 및 각 귀족집단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보다 복잡하게 얽히면서 전개되었을 것이다. 또한 대대로의 선임을 통한 귀족연립정권의 운영도 점차 그 기능에 한계가 나타났다. 예컨대 淵蓋蘇文가문은 여러 대에 걸쳐 막리지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당대의 여러 귀족가문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강하였다. 따라서 실력에 의해 대대로를 차지하는 정치운영 구조에서 연개소문가문의 독주 가능성이 커졌다. 귀족간의 합의를 통한 귀족연립체제에서 한 가문의 독주는 귀족들 전체의 이익에 큰 위협이 되었다.<sup>64)</sup> 그래서 연개소문의 父인 대대로 太祚가 죽은 것을 계기로 다른 귀족들은 연개소문으로 하여금 父職을 계승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sup>65)</sup>

한편 영류왕의 입장에서든 연개소문가문의 독주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sup>66)</sup> 귀족들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왕권을 바탕으로 적절한 중재와 조정을 통하여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얻을 가능성이 있지만, 한 가문이 다른 귀족들을 압도할 경우 오히려 왕권의 지위마저 불안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영류왕과 다른 귀족들은 연개소문가문을 견제하려는 데에 이해관계를 같이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연개소문이 부직을 계승하지 못하도록 시도하였으

論叢》, 亞細亞文化社, 1992), 29쪽.

63) 영류왕의 즉위가 영양왕의 후사가 없기 때문인지는 사료상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와의 전쟁에서 세운 공훈이 어떤 형태로든지 영류왕의 즉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64) 田美姬, 〈淵蓋蘇文의 執權과 그 政權의 性格〉(《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一潮閣, 1994), 274쪽.

65) 《三國史記》권 49, 列傳 9, 蓋蘇文.

66) 연개소문의 집권을 귀족연립정권에서 대대로가 누리던 권한을 유지하려는 연개소문과 왕권을 확립하려는 영류왕과의 대결의 결과로 보는 견해도 있다(金基興, 앞의 글, 30쪽).

나, 이것이 실패하자 일단 연개소문을 변방의 천리장성 축조 책임자로 임명하여 중앙에서 내보낸 후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어, 거꾸로 연개소문의 반격을 받아 영류왕 등이 살해되고 말았다.<sup>67)</sup>

보장왕 원년(642) 정변을 통해 영류왕과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연개소문의 등장은 대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영류왕을 포함하여 대신 100여 명을<sup>68)</sup> 살해한 대규모 정변이었기 때문에 그 뒤의 정국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정변 직후 연개소문은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반대파 귀족들의 세력기반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당 태종의 침략을 물리친安市城主는 연개소문의 정변에 반대의 입장에 있었는데, 연개소문도 이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타협하고 말았던 것이다.<sup>69)</sup>

이처럼 지방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는 반대세력이 존재하는 한, 연개소문 으로서도 반대파를 완전히 제거하는 권력구조의 재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었다. 또 갈수록 고조되는 당과의 대외적 긴장도 대내 정치분쟁의 확대를 주저케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정변 이후에도 연개소문은 반대파 귀족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따라서 귀족연립체제의 성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으나, 연개소문은 과거의 대대로에 비하여 한층 강화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였다.

연개소문은 집권 이후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였다. 정변 직후 同姓인 都須流金流를 대신으로 삼고,<sup>70)</sup> 보장왕 2년에는 도교진흥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불교 및 유교에 대한 억압을 꺾하였다. 당시의 불교가 왕실이나 각 귀족집단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의 도교정책은 곧 왕권과 귀족세력에 대한 통제책이라고 할 수 있다.<sup>71)</sup> 이와

67) 《三國史記》권 20, 高句麗本紀 8, 영류왕 25년 및 권 49, 列傳 9, 蓋蘇文.

68) 《日本書紀》권 24, 皇極天皇 원년 2월조에는 180여 인으로 되어 있다.

69) 《唐書》권 220, 列傳 145, 高麗.

70) 《日本書紀》권 24, 皇極天皇 원년 2월.

71) 李萬烈, 〈高句麗 思想政策에 대한 몇 가지 檢討〉(《柳洪烈博士華甲紀念論叢》, 1971), 31~33쪽.

같은 사상계의 재편을 통하여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려는 연개소문의 도교정책은 의당 불교계나 귀족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니, 보장왕 9년(650)에 백제로 망명한 普德의 예는 당시 고구려 불교계의 입장을 잘 보여 준다.<sup>72)</sup>

이후에 연개소문은 사적 권력기반의 강화에 더욱 주력하였다. 그는 太太對盧·太莫離支 등의 새로운 관직을 만들어 취임하였는데, 이는 연개소문이 자신의 집권력을 계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한 일종의 초월적 지위의 종신직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연개소문의 아들들인 男生·男產 등은 보장왕 10년 이후 대형·위두대형 등을 역임하면서 연개소문의 핵심적인 세력기반을 조성하였다. 남생·남산 등은 제7위에 불과한 (中裏)大兄에 있으면서도 이미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sup>73)</sup> 이런 사실 자체가 연개소문가의 사적 권력기반이 강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태대로·태막리지 등의 집권적 관직의 신설과 자신의 아들들을 요직에 등용하는 연개소문의 사적 권력의 강화는 태대로의 주기적인 선출을 통해 귀족세력간의 세력 조정과 합의에 기초하는 기존의 정치운영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다.<sup>74)</sup> 이는 곧 귀족연립정권의 정치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귀족들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귀족세력의 반발은 연개소문이 사망한 후 그의 아들들의 권력다툼과 당과의 전쟁과정에서 표면화되었다. 동생 남산·남건에게 쫓긴 남생과 국내성의 귀족세력들은 국내성 등 6성과 10여 만호를 이끌고 당에 투항하였다.<sup>75)</sup> 당시 당으로 이탈하는 귀족세력의 동향은 이외에도 후기의 명문가문 출신인 위두

李乃沃, 〈淵蓋蘇文의 執權과 道教〉(《歷史學報》99·100, 1983), 83~89쪽.

또 당과의 우호관계를 위하여 도교를 존송하는 당으로부터 도교를 받아들인 측면도 있음을 지적한 견해도 있다(李萬烈, 위의 글, 30쪽).

72) 《三國史記》권 22, 高句麗本紀 10, 보장왕 9년 6월.

普德의 활동에 대해서는 盧鋪彌, 〈普德의 思想과 活動〉(《韓國上古史學報》2, 1989) 참조.

73) 《唐書》권 110, 列傳 35, 泉男生.

74) 연개소문 정권의 성격을 이원집정제로 보는 견해도 있다(金基興, 앞의 글, 20쪽).

75) 〈泉男生墓誌〉(앞의 책), 494쪽.

《三國史記》권 49, 列傳 9, 蓋蘇文.

대형 高文이 당으로 망명한 예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sup>76)</sup>

이러한 귀족세력의 이탈은 당과의 전쟁과정에서 고구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남생에 의한 국내성의 이탈 이후, 서북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신성 등 16성과 부여성을 비롯한 40여 성이 차례로 당군에 항복하고,<sup>77)</sup> 연개소문의 동생 淵淨土도 12성을 이끌고 신라로 투항하였다.<sup>78)</sup> 결국 국내성·신성·부여성 등 서북방의 중요 거점들을 차례로 상실함에 따라 고구려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을 잃고 말았다.

고구려가 당과의 전쟁에서 결국 패배하게 된 원인의 하나는 귀족세력들의 분열과 이탈이다. 전쟁의 중요 무력기반인 지방세력의 이탈도 이와 관련된다. 그런데 이 때 이처럼 귀족세력간의 모순이 심화된 이유는 기왕의 귀족연립정권의 정치운영체제를 부정한 연개소문가문의 파행적인 집권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sup>79)</sup>

대대로—막리지 중심의 정치운영체제는 불안정한 면도 적지 않았지만, 당시 귀족집단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분산적인 귀족세력을 어느 정도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연개소문의 집권과 사적 권력의 강화는 이러한 정치운영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귀족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통로를 상실함으로써 귀족세력 사이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고, 거듭되는 대외적 위기 속에서 끝내 귀족세력의 분열과 이탈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林起煥〉

76) 〈高慈墓誌〉(위의 책), 511쪽.

77) 《三國史記》권 22, 高句麗本紀 10, 보장왕 26년·27년.

《唐書》권 220, 列傳 145, 高麗.

78) 《三國史記》권 6, 新羅本紀 6, 문무왕 6년.

《唐書》권 220, 列傳 145, 高麗.

79) 林起煥, 앞의 글(1991), 47~49쪽.